

별들의
발자국

소사리
별
폴레
소리

2019년 가을의 한 자락,
소사리의 깊은 골에서

만 년 : 필

목 차

제 1부 : 책을 엮으며...

송원호 선생님: 머리말

조수아 A: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최산: 글자의 바다를 ‘완성’하다

제 2부: 만년필 부원들의 이야기

1. 박성원 - 어른이 된다는 것

집과 축배

성장통 I - 잃어버린 것

출입금지입니다

끊은 길

그들의 말

개막

새벽 한 시 사십삼 분의 대화

방백

2. 신보라 - 보라색 문으로 보는 풍경

우리집은 달동네

산책

투명인간병

3. 장승연 - 화묘풍월

무제 I

On your Sparkling Look

무제 II

무제 III

4. 조수아A - 사랑에 사랑을 싣고

오늘 네 날씨는 맑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5. 최서원 - 낭만적 비판론자

백록
안개의 밤

6. 최서희 - 솜사탕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섭씨 24도 흐리고 한때 비

7. 한지우 - 어둠상자

아침의 무대에 발을 딛는다
잊어버린, 잃어버린
나를 감싸는
비오는 날이면 종묘에 간다

8. 김민정 - 붉은 라일락

망각
그대
달을 인연이었다면
라일락을 그대에게

9. 김태림 - 내일을 등지고

그 밤들

향기가 견히고

암막커튼

10. 박서연 - 나비처럼 절뚝거리는 날들을 기록합니다

AI

네온 레드 슈즈

브런치

11. 서주환 - 아기가 되고 싶은 아저씨

걷는 나방

김정과 하양

고흐의 일기

공감

답

모태솔로

부부싸움

검은 눈물 자국

이명준이 아들러를 만났다면

화살과 민들레

임석(臨夕)님

임석(憐石)님

임석(琴鳥)님

12. 왕동현 - 웃는 입 찌르는 눈빛

최상

13. 최산 - 깊게.

잡초가 나무를 위로했습니다
너를 재정의하다

제 3부: 민사고 백일장의 이야기

1. 가을의 산문

공(空)간의 모나리자 - 아네모네
짧은 여행의 세 가지 선물 - 22기 이현서
어머니-혀 Mother Tongue - 23기 한지우
비움으로 채운 것 - 22기 김수민
정류장 - 22기 김중현

2. 가을의 운문

안녕 - 22기 이승연
그림자 - 22기 이승연
남가일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 23기 오다은
색채 - 23기 오다은
공덕역 8번 출구
태혜란호의 저녁

제 4부: 맺으며...

신보라: 별과 같은 문집이기를, 우리이기를
최서원: 문집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제 1부 : 책을 읽으며...

머리말

이 문집은 민사고 학생들이 문학적 감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만든, 민사고 최초의 디지털 문예창작집입니다. 처음이기에 이 문집이 탄생한 이야기를 기록해두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사고에서 처음 수업을 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주20시간 수업을 맡았었고, 다른 학교와 너무도 다른 우리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기에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11학년 학생이 찾아와서, 문예창작 수업을 2학기부터 개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때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 학교에 문예창작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수업 개설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도 되었지만, 학생들과 문예창작 및 글쓰기에 대해 공부하고, 성적에 대한 부담없이(IR수업이었기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 개설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해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여름학기 수업 포함) 계속 수업('국어주제탐구'라는 이름으로)이 개설되었음은 물론이며, 매 수강 신청 때마다 수강 인원 제한 수를 훌쩍 넘긴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수강 신청 시스템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 학생들과 2017년에 문집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유명 출판사와 신문사 주최로 '학급 문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응모한 것이 당첨이 되어 무료로 50부의 문집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의 문집은 만든 사람끼리만 나누어 소장한,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들끼리의 문집'이었습니다(몇 권은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여, 도서관에도 소장 중이지만).

매해 문집을 만들고 싶었지만, 2018년부터는 제가 국어과 수석교사를 맡게 되며 너무도 바빴고, ‘학급 문집 만들기’ 프로젝트도 지속되지 않아 흐지부지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문집 제작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그것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글날 기념 백일장을 주최하는 국어과의 수석교사로서, 학생들이 쓴 글들을 보며, ‘매해 백일장 때마다 창작되는 학생들의 좋은 글들이 이렇게 잊혀지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내 수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백일장 수상 역시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진솔하고 좋은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대충 끄적여내는 학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수상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없이, 그러나 정성스럽게 제출했음이 느껴지는 대부분의 글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3기 학생들이 문예창작 동아리(만년:필)를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예창작 동아리 학생들에게 문집이란 창작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며, 해마다 자신들의 작품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매해 자비로 출판하는 것은 지속하기엔 부담되는 일이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디지털문집을 만들면 돈이 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때, ‘내가 왜 그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자책하며 아쉬워 했습니다). 문집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문집. 창작에 대한 열정이 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작품과 매해 백일장에서 창작되는 학

생들의 글을 실으면 풍성하고 알찬 문집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매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품엔,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작품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오만함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보인다는 것은 쑥스럽고 때론 부끄러운 일이며, 따라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글도 세상에 내보이지 않는다면 그 글은 죽어있는 글이 되고 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글을 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당연히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엔 문학을 사랑하고, 문예 창작을 좋아하고, 글쓰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이 많습니다.

‘만년:필’ 회원들처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함께 모여, 글을 나누고 토론하며 서로 동기부여 및 자극제가 되며 창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혼자서 창작열을 불태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문집이 ‘만년:필’ 회원들에게는 1년에 한번씩 그 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확인하는 결실의 기회가 되고, 용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집은 특정한 소수의 것이 아니라, 문학을 문예 창작을 글쓰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민사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집 제작은 민사고의 전통이 되어 계속 진행되
길 바라며,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년:필 지도 교사 송원호 Dream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23기 조수아A

안녕하세요! 현존하는 민사고 내 유일한 문예창작 동아리 ‘만년:필’의 창립자 23기 조수아A입니다. 처음 동아리를 만들면서 언젠가 문집을 만들고 나 자신을 창립자라고 거론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동아리의 문집이 만들어지고, 그 문집에 실릴 머리말까지 ‘창립자’로서 맡아 쓰게 되니, 신기하고 얼떨떨하네요.

창립자라고 거창하게 소개했지만, 저는 사실 글썃씨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머릿속에 침투하고 가슴 속에서 날아다니는 수많은 단어들, 생각들, 상상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써 더 잘,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생일 뿐이죠. 남들이 보고 감탄할 만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독창적이고 새롭지도 않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글을 쓰는 특별한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년:필’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꼽자면, 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수많은 과제와 바쁜 스케줄, 시험공부에 치여 힘겹게 삶을 살아온 후, 홀로 남아 차분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을 때에,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만년:필’이라는 동아리 이름도 이와 같은 글쓰기에 대한 저희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만년필은 쓰면 쓸수록 축이 닳아가며 사용자의 필체에 익숙해지는 필기구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만년필과 같이 ‘글을 쓰고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익숙해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만년’이라는 단어와 ‘필(筆)’이라는 단어를 나누는 장음 표시(:)로 ‘천년 만년 글을 쓰며 글쓰기에 빠져보자’라는 뜻도 표현했습니다. ‘만년:

필' 부원들이 글쓰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은 동아리 이름입니다.

'만년:필'은 2018년 2학기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문예창작 동아리'에 대한 구상은 민사고를 준비하면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민사고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공부, 활동을 하겠다는 열의가 불타오르던, 중학교 3학년 당시의 저는 민사고의 동아리에 대해 찾아보던 도중 그 많은 동아리 중 제가 사랑하는 글쓰기에 관한 동아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예창작 동아리가 없다고?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글쓰기 자체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았다고 알려진 민사고에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있다', '우리가 글쓰기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문예창작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10학년 2학기 초, 저는 저를 포함한 여덟 명의 글쓰기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년: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저 혼자서 다짐을 가득히 하고, 저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만든 동아리 같지만, 사실 이 동아리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년:필'이라는 이름도 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요. 결국 저는 그저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하고 외치는 역할이었을 뿐, 이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외침에 하나 둘 모여든 부원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만년:필' 부원들은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동아리를 처음 구상하며, '동아리 부원들끼리 어색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든지 한 학기만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등등의 고민을 사라지게 해준, 모임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만들고 글쓰기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흔한 글쓰기 동아리 같은데, 무엇을 하기에 그렇게 즐겁나요? 글
썰요. 만년:필에서도 그리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버터
내며 톱툰이 쓰고 다듬은 글을 나누고, 서로 인상깊었던 부분, 아쉬운
부분, 이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말한 뒤, 누구의 글일지 맞히는
활동을 합니다. 뻘하고 반복적인 루틴이지만, 지루하다는 생각보다는 여
유롭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글 속에 ‘나의 이
야기’, 정확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입니다. 민사의 하늘, 민사
의 일상, 민사에서의 사랑, 고민, 갈등...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글을
읽으며 웃고, 슬퍼하고, 공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오는 ‘공감’이 이
동아리 모임을 즐겁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최소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시나요? 만
년:필 동아리와 같은 소설과 시? 내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 어떤 글이
든, 그 소재의 시작은 본인이 겪은 감정, 사건,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짐
작합니다. 글쓰기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이 평범한 사람도 키보
드에 손만 올리면 쓸 수 있는 것이 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글에 자
신의 이야기를 담는 것입니다. 민사고의 문예창작 동아리인 ‘만년:필’에
서는 민사고의 이야기를 담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 문집을 읽으며 여러분이 민사고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 학생들에
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게 되고, 이 글에 담긴 각각 학생들의 이야기
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글을 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쓰기와 이 동아리를 사랑하는 성원이, 보라,
승연이, 서원이, 서희, 지우, 민정이, 태림이, 서연이, 주환이, 동현이, 산
이, 그리고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송원호 선생님께 고마
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글자의 바다를 ‘완성’ 하다

24기 최산

문학은 알다가도 모를 학문입니다. 정답이 없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점은 모두가 문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종이와 펜(또는 그와 유사한 무언가)만 있으면 탄생할 수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만년필을 만들고 유지해 오신 선배님들을 이어, 이제는 24기 후배들이 같은 위치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춥던 겨울날의 소사리에서 만년필의 신입부원을 모집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문학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했고 저 빛나는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문집을 편집하고 있는 지금, 창문 밖은 또다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선배님들과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웃고, 또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행복한 분홍빛을 띠며 소사리의 아침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년필은 글자의 바다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개인의 뜻과 감정이 모여 문장들을 만들고, 이 문장들은 다시 타인의 뜻과 감정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손끝에서 피어난 형형색색의 글자들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글자의 바다를 저희가 감히 ‘완성’하고자 합니다. 글자의 바다를 완성해서 이 바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님들과 우리가 완성한 이 글자의 바다를 즐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 2부 : 만년필 부원들의 이야기

집과 축배

박성원

내 집이 있었다
거기에는 멋진 가구들과
화려한 벽지
밝은 조명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다

집에 돌아온다는 기분
소속감이 있다는 기분
그런 기분에 취해
익숙함에 취해
버린 걸까나

그 집의 모든 것들은 언제부터인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라져 버렸다

눈앞에 있었지만
없었고 멋졌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화려하지만
초라했고 밝지만
어두웠고 따뜻했지만
싸늘한 그런 집이었다

집으로 오는 잘못 걸어온 전화
받지도 못했다

집으로 오는 잘못 전달된 편지
읽지도 못했다
이상했다, 무엇일까 이
익숙함과 괴리함은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당신의 축복받은 불행을 위해서
그 느낌을 잊어버렸다면
당신의 빼앗긴 집을 위해서

건-배

성장통 I - 잃어버린 것

박성원

“또 왔네.”

별이 말했다. 나에게 한 말인가. 아닌가.

“또 왔어.”

내가 말했다. 별에게 한 말인가. 아닌가.

이걸로 몇 번째일까. 별을 만나러 은하수 계단을 밟아 여기까지 온 것이.

★ ★ ★ ★ ★ ★ ★

“매번 오느라 수고하네.” 별이 살짝 웃으며 나를 반겼다.

나는 별의 품 안에서 한숨을 쉰다. 입김이 오로라가 되어 저 멀리로 날아간다. “사실 오는 것은 힘들지 않아. 그냥..”

“그냥 뭐?” 나를 잠깐 놓은 채, 별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나는 사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고 싶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니야. 오늘따라 구름이 많네.”

“그러네.”

조용함이 구름처럼 다가와 우리를 포근하게 감쌌다.

★ ★ ★ ★ ★ ★ ★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갑작스럽게 말하는 바람에 별이 화들짝 놀란 듯하다.

“무슨 소리야?” 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가 궁금할 뿐이야.” 나는 말을 이어갔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가끔씩은,” 나는 수평선을 가리켰다. “가끔씩은 말이야, 저 멀리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탄 유성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유성을 꺾어서 가볍게 만들기도, 모양을 바꾸기도 했는데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저 멀리까지 갈 수는 있을까가 궁금해져.”

나의 시선을 계속 수평선에 있었지만, 옆에서 별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이 느껴졌다. 내 말을 들은 별은 한동안 조용했다. 하지만 포근한 조용함은 아니었다. 차가운 조용함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별을 보았다. 역시, 별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 그런 걸 해?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저 멀리까지 가고 싶어?” 별이 물어보았다.

나는 잠깐 별의 말을 곱씹었다. “당연하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별은 잠깐 고민하는 것 같았다.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 근데 꼭 가야 될까?”

“가고 싶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별은 한숨을 크게 했다. 한숨은 오로라가 되어 저 멀리로 날아간다. 별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멀리로 가고 싶은 건 맞아. 그런데 가끔씩은 ‘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걸까? 왜 더 멀리, 더 빨리 가야 되는 걸까? 내가 타고 있는 유성은 점점 작아지지만 하는데, 그냥 그대로 유성을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는 것이 더 편하지는 않을까?”

별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내 가슴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편하겠지.” 나는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편하기만 할 거야. 저 멀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

른 채로 있을 거라고.”

“그렇긴 한데...” 별의 목소리는 조금 주눅 든 것 같았다.

“편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 해.” 나는 한 번 더 강조했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나는 뒤돌아서 별의 등을 바라보았다. “넌 아무것도 못하고 싶어?”

별은 등을 여전히 나에게 돌린 채 자리에 앉았다. “그렇진 않지만...” 나는 계속해 나갔다. “남들도 다 저 멀리 있고, 저 멀리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넌 뒤쳐져서 살겠다고?”

별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너무 흥분했나 봐.”

“아니야, 흥분할 만했어.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별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조용함이 안개처럼 다가와 우리를 가렸다.



“너도 알지?” 별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내 가슴 속 비는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고 싶었다. “어? 뭐를?”

별은 뒤돌아서 앉은 채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에이. 모르는 척하지 마.”

시야가 흐려졌다. 어지럽지는 않았다. “설마.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별의 입은 웃었지만, 별의 눈은 죽어 있었다. “미안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앞으로 못 있어줘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 눈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렸다. 빗물은 별의 눈에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가지 말아줘.” 나는 울먹였다. “나는 너 없이는 - ”

별은 내 입에 손을 갔다 됐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환한 미소였다. 내 눈에는 제일 환한, 그러나 마음에는 제일 어두운 미소였다. 마침내 별의 눈에서 마지막 빗물이 흘러내렸다. 별은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다.

★ ★ ★ ★ ★ ★ ★

내 입에는 아직 못다 한 말이 새벽 잎의 이슬처럼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말은 의미가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별의 마지막 말들을, 마지막 대화를 가슴 속으로 간직하고 싶었지만 이미 조금씩 날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내 가슴 속에는 점점 별의 흔적이 없어지고 있었다. 별의 얼굴, 별의 행동, 별의 말투, 하나하나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나는 처절하게 울었다. 하늘에게 빌었다. 제발 나한테서 별을 뺏어가지 말라고. 제발, 조금이라도 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발. 제발. 제발. 빌고 또 빌었다. 눈에서는 빗물이 계속 떨어졌다.

더 이상 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더더욱 크게 울었다. 빗물은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별의 행동들이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했다. 빗물은 조금씩 커지고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별의 말투가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울부짖었다. 왜. 왜 나에게 별을 뺏어야만 하는가. 나는 우는 것인지 토하는 것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 ★ ★ ★ ★ ★ ★

별이 누구였는지도, 같이 뭐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게 되었다. 왜 더 이상 못 만나는지도 까먹었다. 그러나 그 미소 하나만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미소의 의미, 그 미소가 나온 맥락은 모르겠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분명히 나를 향했던 그 미소 하나만은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는 그 미소를 찾으러 저 멀리로 가는 것이었을까.
별을 만나러 저 멀리로 가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오늘도 혼자서 유성을 꺾으며 저 멀리로 나아간다. 더 이상 왜 그런 지도 모른 채.

★ ★ ★ ★ ★ ★ ★

출입금지입니다

박성원

출입금지입니다
보는 것조차 금지입니다
당신들의 기분을 위해서입니다

출입금지입니다
듣는 것조차 금지입니다
당신들의 생각을 위해서입니다

출입금지입니다
만지는 것조차 금지입니다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 주위에 쌓은 벽은
당신들이 세운 벽입니다
저뿐만이 바깥인 벽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정도
처참히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금지입니다
당신들이 웃기 위해서
당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눈물이 거꾸로 흐를 때야 비로소
차갑게 반겨주는 콘크리트 하늘은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끊은 길

박성원

그는 그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었을 뿐.
그저 알고 싶었던 것을 몰랐을 뿐
그에게 잘못은 무엇 하나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무언가를 들고 떠나간 것처럼 느껴져서
뺏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에 결국 견디지 못해
그는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놓은 손에는 하나의 불꽃, 하나의 눈꽃이 있었고
그 꽃은 만개했지만 그렇지 못한 채
아름답게 시들어 버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거울에는 괴물이 살고 있었고
호숫가에는 악마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살며시 웃을 뿐이었다.

새야, 날아올라라. 드넓은 창공을 마음껏 누벼라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너는 다르지 않느냐
어서 날아서 멀리 떠나버려라

그는 날개를 펼친 채
뭉였지만 묶이지 않은 채
스스로 추락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

박성원

그들은 말했죠

푸르른 나무 조금에
시원한 바다 조금이면
따뜻한 해님이 될 거라고

서로 등을 돌린 채 있어도
먼저 손을 내민다면
별이 반짝 빛난다고

나의 목소리 높이면
다른 소리 들려와서
좋음 화음 날 거라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밝은 것들뿐이라고
울음이 나버린대도
노력하면 웃는다고

나는 말했죠

파란색에
초록색을 섞는대도
밝은 노랑은커녕 칙칙한 색이 나온다고

서로 심하게 다툰 후에
먼저 화해하자 사과한다면
겉으로만 화해하지 무시당할 뿐이라고

나의 의견 말을 해도
남의 의견과 충돌하면
양보 따위 존재 안 한다고

세상은 추잡하다고
겉보기만 밝을 뿐이라고
울음이 나버릴 틈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노력하면 웃기에
웃어야 하기에
노력해야 하기에

나도 결국은 그들이
되어버렸기에

그들은 말했죠

푸르른 나무 조금에

개막

박성원

막이 오른다는 것은
무대의 시작이며
가면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가면을 쓴다는 것은
그 얼마나 괴이하며
그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얼마나 누추한 것인가

가면을 바꾼다는 것은
그 얼마나 부끄럽고
그 얼마나 웃음을 사며
그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눈물을 마르게 하고
분노를 멈추게 하고
눈길을 돌리게 하고
그러한 가면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보단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들이

우리들을

우리들은

초라한 가면을 쓰는 관객은
가면을 쓴 듯한 배우들을
바라만 볼 뿐

세상의 막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르고

새벽 한 시 사십삼 분의 대화

박성원

“새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부숴야 한다고? 표현이 이상한데. 마치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유인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이 선택해서 세상을 부수는 것처럼.”

“그 나라의 표현일 수도.”

“그럼 태어나기 싫다면 영원히 세상을 부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들어보니 웃기네.”

“웃기고말고. 책은 우리에게 거짓을 알려주었어. 영화, 드라마, 만화, 다 거짓이야.”

“거짓은 아니지.”

“거짓이 아니라니. 사실이 아니잖아.”

“아니, 사실 사실이야.”

“어떤 면에서.”

“네가 말한 모든 것은, 행복한 순간들만 모아놓은 거야. 가치 있는 순간들만 모아놓은 거지. 의미 없고, 불행한 순간들은 다 가지를 쳐내고.”

“사실 왜곡이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왜곡이나, 거짓이나. 결국 그게 진실한 모습이 아닌 것은 맞잖아.”

“그렇지.”

“진실한 것은 뭘까.”

“거짓되지 않은 거지?”

“그것만이 진실이야?”

“당연하지.”

“그럼 너처럼 거짓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거짓들로부터 얻은 모든 것들은?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건, 아닐 수도.”

“거짓된 경로를 통해 얻은 것조차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는 진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

“그렇네.”

“세상은 거짓이야.”

“그런 대담한 발언은 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냥 그렇다고.”

“너도 거짓이야?”

“그건 너야말로 제일 잘 알잖아.”

“나도 거짓이고?”

“내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알잖아.”

“내 주변도, 내 세상도?”

“응.”

“내 모든 걸 거짓으로 단정 짓다니. 한 사람의 삶을 부정하는 거는, 내가 아니었으면 분명 무척 화를 낼 만한 일이야.”

“너의 삶을 부정한 적 없어.”

“방금 세상이 거짓이라고 했잖아.”

“그랬지.”

“부정했네.”

“그렇지는 않았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세상은 거짓이라는 거.”

“너는 늘 그렇지만 답답하네.”

“그럴 수도.”

“얘기하기 싫어진다.”

“세상은 거짓이지만, 거짓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진실한 세상이야.”

“네 주제에 어려운 것만 골라서 말하는 것 같다.”

“그렇지? 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김빠지네.”

“너의 알은 깨지고 있어.”

“알아.”

“너가 깨뜨리고 있는 거야?”

“아니. 알아서 깨지고 있어.”

“과연?”

“나는 아직 세상을 부수고 싶지 않아. 그럴 준비는 안 되어 있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럼?”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왜 알이 마음대로 부서지는 거냐고.”

“글쎄.”

“만약. 만약에, 새가 태어나기 위해서 알을 부숴야 한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나는 알을 부수지 않을 거야.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어리네.”

“너도 어려.”

“알아.”

“알아서 뭐 해. 네가 알아서 뭐 하냐고. 날 도울 수도 없잖아.”

“도울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아니, 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 아프다고. 아프고 무서워. 아직. 아직이야. 나는 아직이야. 네가 말했듯 너도 잘 알잖아. 도와줘. 누구든 좋으니까 제발.”

“도울 필요 없다니까.”

“구역질 나네. 너도 그들과 똑같이 굴 거야? 못 도와준다는 핑계만 대고, 도움이 필요 없다는 핑계만 대고, 나를 내버려 둘 거냐고.”

“내가 너를 못 내버려 둔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말꼬투리 잡지 마.”

“알은 스스로 깨지지 않아.”

“아니, 스스로 깨져. 이미 그러고 있다니까?”

“나를 봐. 그래도 스스로 깨진다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

“아니.”

“뭐라고?”

“아니. 못 말하겠어. 너를 보니까 선뜻 못 말하겠어.”

“너도 알아. 알은 스스로 깨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있다는 거 자체가 증거야.”

“근데 아파.”

“알아. 나도 알아. 아플 거야. 무척이나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무서울 거야. 그렇게 알을 깨는 거야.”

“입바른 소리나 해대긴.”

“입바른 소리일지도 모르지. 혼해빠진 말 일지도 모르지.”

“흔한 말이라는 건 잘 아네.”

“근데 이런 말이 왜 흔한지는 알아?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흔해빠진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뭐라는 거야.”

“너도 알잖아.”

“아파.”

“나도 아파.”

“무서워.”

“나도 무서워.”

“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럴 거 같아?”

“왜 그럴 거 같냐니?”

“똑같은 걸 두 번 말하게 하는 습관 좀 버려라. 왜 그럴 거 같아?”

“넌 이미 알을 켜었으니까.”

“정답은 아니야. 하지만 가까웠어. 그러니 너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

“아니. 안 보여.”

“보고 싶지 않은 거겠지.”

“응.”

“갈 시간이네.”

“그러네.”

“잘 가.”

“그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왜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합니까?
흔히 말하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잘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어차피 죽으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나 추잡하게 몸부림치는 겁니까?
이렇게나 남을 경계하고
상처 입히며
끌어내리고
깃뺏으며
성공이라는 산을 올라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얻는 것이 성숙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순수한 흥미와 재미,
저기 저 아이의 호기심에 가득 찬 눈동자를
잃게 되는 것이 성숙입니까?

선생님,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 게 정상입니까?
저는 왜 배운 것은 많은데
정작 배운 것은 쓸 곳이 없고
세상은 제가 모르는 걸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것들은
언제쯤 배우게 될 것입니까?

매일 훑어 죽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선
문제집 몇 권을 풀어야 합니까?
친구의 떨리는 손에 든 수면제를 뺏기 위해선
자습서 몇 페이지를 펴야 합니까
제 안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선
어떤 공식을 쓰면 됩니까?

선생님,
왜 아무 말 없으십니까?
결국 또 '나중에 다 알게 돼'라고만 하실 겁니까?
나중은 언제입니까?

선생님,
지금 전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 할 뿐인데
왜 이렇게나 서럽고
왜 이렇게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나중은 절대 안 올 것이라는 걸 알아서 입니까?
제가 나중에 선생님 자리에 설 것을 알아서 입니까?

선생님,
포기를 하면 편한 겁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신 겁니까

저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집은 달동네

신보라

우리 집은 달동네

이삿짐 트럭 운전기사 빼곡한 지붕 보고 놀랐지

동네가 후지다고 수근거리던 사람들아

네 녀석 사는 도시란 곳 여기만큼 아름답지 못할 걸

달 달 보름달 휘영청 밤하늘에 오르면

동구 밖까지 환하게 비추는 명량의 선을 넌 몰라

네 녀석 사는 아파트란 곳 그 위엔 잿빛 회반죽이 있노니

산책

신보라

여우비 보슬비

물

방울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 자작하게 내리는 거리

매연 찬 도시의 혼잡함

노스텔지어의 내음 나는 시골길을

우산 우비 없이

그저 발걸음 향하는 대로

마음껏 모험을

나직한 아파트

작달막한 시가지 지나

뻑뻑한 판자촌

휘영청한 달동네 어귀 선회하다

빗줄기 거세지면

두 팔 벌리어 꼬마 나 맞으시던 할아버지께 안기듯

나뭇잎 중절모 옷걸이에 거신

품 넓고 나이 많은 고목 아래로 들어가

회색 하늘 아래에서

젖어가는 옷깃

흐르는 가닥의 서늘함

잠자는 가게들

인내하는 처마들 사이로

골목마다 비치는

인간의 온정을 들이마신다

투명인간병

신보라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누군가 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

나는 마지막 색(色)인간,

마지막 남은 색인간

아니 나를 끝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부 투명해 지는 것이니 나는

마지막 투명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

나는 마지막 색인간

인류의 절멸을 목도하며

유일하게 남은 아직 투명하지 않은 존재

경우 없이 이유 없이 행했던 선행

시간을 이리도 벌여 줄 줄이야

덕분에 관객 없는 유언도 남기고
최후의 일인 저 나름대로의 사치를 피우며
인류 멸망 종막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지

투명함이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 전염병은 어느새 우리 속에 발발해
서서히 빠르게 사회의 핏줄 따라 퍼졌지

투명함이란
무색무취 징조 없이 뇌로부터 자라나
환자도 보인자도 제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지

투명인간 병은 몸 전체가 투명해 지는 병
제일 먼저 망막이 투명해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곧 아무에게도 보이지 못하고
편리한 병이라던 사람들 그 생각 고쳐먹게 되었지

투명인간이란 그 자리에 있어도 거들떠볼 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타인을 볼 수 없는 사람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네

타인을 보지 않는 사람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네

나는 마지막 색인간
인류의 절멸을 목도하며
유일하게 남은 아직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존재

나의 망막까지 벌써 균이 침투하여
나에게 찾아온 투명함을 맛보며
나의 지난 세월을 후회해 보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에 퍼진
투명인간병의 흉터는
뒤늦은 고해성사 몇 마디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누군가 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

제발

무제 1

장승연

계속 혼자 있는 네가 너무 외로워보였다

넌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난 외로움이라는 거에 너무 민감해서

계속해서, 네 옆에 있었다

그렇게 난 네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갔고

넌 날 어떻게 생각할지를 마개 삼아 병을 닫으며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밤기운에 취해 병을 닫을 수 없던 날

주정뱅이가 술병을 흔들어보이듯, 난 네 눈앞에서 병을 흔들어 보였다

네 고개는 병을 보자 가웃 기울어졌다

“아, 역시.

일방은 역시 힘드네”

그러자

“축하해 쌍방이야”

라며 너는 빙긋 웃었다

On your Sparkling Look

장승연

당신은 스파클링 워터를 좋아했었지
모든 알코올의 텐션을 높여준다는 점을 정말 좋아했었어
맛도 마음도 생각도 전부 섞어버려서
맛있는 한 잔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신의 직업

모두의 잔에 건배를 부딪히며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당신은
속에 녹이 곱아 있었겠지만 그 녹은 술맛을 버리지는 않았지
그저 블랜딩 보틀의 목을 더욱 녹슬게 했어

당신은 정말 별 같은 사람이었어
모두가 쓸쓸하게 늦은 밤에 캔맥주에 취한 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주사와 어물거림을 그저 들어주는
그저 잔잔한 눈빛을 쓸쓸한 주정뱅이에게 비춰주는
당신은 맞아, 정말 모두에게 별 같은 사람이었지
혼자 외로이 빛나는 북극성 같은 사람이었어

은하수, 당신은 가끔 당신이 예전에 살던 곳의 밤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

태양이 분홍보랏빛 베일을 천천히 산 넘어로 끌고 내려가 가라
앉아버리면

그렇게 검푸른 술의 층만이 남게 되는데

조그맣게 빛나는 것이 떠오르길 기다리며 계속 그 층을 바라보고 있으면

탄산수를 부은 것처럼, 탄산이 떠오르는 것처럼 뽀글뽀글, 하고 별이 올라오고

때마침 바람도 청량하게 불어와 당신이 좋아하던 딱 스파클링 그 자체의 밤이 되었다고

당신은 두툼한 유리잔을 닦으며 회상했었지

멋모르고 고양이는 스파클링이 담긴 크리스탈을 깨뜨려버렸고

바텐더씨는 그걸 치우다가 손을 다쳐버렸네

데여버린 흥터 위에 붉은 선이 그어지고

바에는 더 이상 동물이 출입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어

백조도 말인간도 황소도 폐가수스도 모두 말이야

하늘을 올려보면 샴페인 같은 별하늘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쓰지 않던 안경의 먼지를 털고는 또렷하게 별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별하늘을 바라본 채로, 당신을 생각하며 머리를 흔들며 디켄딩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더욱 맛있어지길

시간이 지나면 더욱 부드러워지길

줄기만을 잡아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규칙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당신이 말한 그곳에서의 별하늘에서

둘이서 스파클링 워터를 오링에 담아 재회의 건배를 하는 거

어때

그때까지 이 블루 라벨을 킵해주지 않을래, 사파이어 드래곤

무제 Ⅱ

장승연

있지, 난 너밖에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난 친구가 별로 없어
아는 사람도, 친한 사람도 없어

사실 조금 있긴 하지만
이들이 계속 내 곁에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러던 걸

이젠 너무 많이 겪어서 아무렇지 않아.
원래 내 인연들은 이러던 걸.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가족이라는 것도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나, 아직은 이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일들이

지금과 계속 대비되어서 대조되어서
아직은 나, 이 사람들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만
만약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도
그 정도 상처는 이제, 아프지 않아져서

너무 쉽게 새나가는 내 상처가
너무 쉽게 들이닥치는 공격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

언제 흘려보낼지 몰라서
언제 몰아세울지 몰라서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언제 공개처형할지 몰라서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쓰라려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저 삼켜내며 살아가.

그렇지만 당신이 있기에

난 오늘도 살아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말벗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제 내겐 당신이 있어.

당신은 아무말없이 내 이야길 들어줘
당신은 내 괴상한 취향도 취미도 존중해줘
당신은 내 그림자마저도 감싸안아줘

신기한 일 아픈 일 슬픈 일
멋진 일 기쁜 일 죽을 것 같은 일

모두, 모두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 당신을 사랑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고마워, < >

무제 Ⅲ

장승연

“있잖아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제 연인이어서 고마웠다고
말할거예요

당신 사진 앞에선
눈물을 억지로 억지로 참고
국화꽃 한 다발을 고요히 올려두겠죠

당신 화장의 시종을 지켜보며
손을 테이블 틈 불씨를 잡고선
당신 손의 온기를 그리워하겠죠

당신의 재를 뿌릴 때
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
같이 밀바닥으로 가라앉겠죠

당신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행복했던 나날의 수만큼
손목에 표시를 해나가겠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당신의 사진을 넘기며
눈물로 잠에 들겠죠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이 있는 그곳을 매일 들러서
당신을 기억할거예요

당신에게 닿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는
당신을 만났을 때 전해줄거예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게요

언제나, 몇 번이라도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네 날씨는 맑습니다

조수아A

별 볼 일 없는 골목 귀통이가 보이면
저 귀통이 너머에 네가 있길 기대하며
심장박동만큼 빠른 발걸음을 종종

마음인지 우연인지 모를 것이 닿아
어찌다가 혹시라도 어떻게든 널 만난다면
그때부터 모든 생각들은 깃털처럼 사랑사랑

간단하게 손 흔들까 고개를 까딱할까 반갑게 소리내서 친한
척 인사할까

먼저 인사할까 모른체 지나갈까 헛기침이라도 해서 눈이라도
맞춰 볼까

인사하면 받아줄까 혹여 당황하면 어찌나 날 보더라도 무시
하지 않을까

날 알아볼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그나저나 내가 누군
지 알긴할까

저 멀리서 더디게 너는 걸어오는데
생각의 깃털들은 끝도 없이 날아다니고

한 걸음 두 걸음 너와 나 사이 거리가 좁혀질수록
엷취 재채기라도 나올 듯이 깃털들의 휘날림은 필력필력
상기된 얼굴 아래 멈춘 생각 어찌지 어떡하지 인사할까 그냥
인사해

수많은 고민의 반복 망설이다 망설이다—마음 꿀꺽 먹고 주
먹 권 그 순간

행인보다 못한 존재로

나를 전락시키면서

관심은 저 멀리로

시선은 밑으로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너,

너.

기대를 안 한 것도 한 것도 아니었고

도대체 뭘 바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왜인지 모를, 아니 사실 왜인지 아는 이 허무함은
들떠있던 것털들을 온통 다 불어버려서
한순간에 가라앉아, 마음속은 엉망진창

인사 한 번 건네는 데에도 요동치는 내 마음을
너는 알까 모를까 아마도 모르겠지
그게 뭐라고 인사는 건네지도 못했는데도
지나침 하나에 만족하는 나는 바보 같지

고개 돌려 네 뒷모습 몰래 훑쳐 보다
풀 죽은 입꼬리 애써 끌어올려 지은 미소
머금고 기나긴 한숨 짧게 내뿜은 뒤 고개를 들면

그리도 아름답던 푸른 하늘에는
온통 네 잔상만이 구름처럼 둥둥

네 하늘은 너무 맑겠지만.

네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네 흔적과 말투, 네 존재의 과연, 네가 내뿜은 이산화탄소, 네 필체가 담긴 기록들, 네 모습이 저장된 사진들, 네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위로, 누군가가 너에게 전했던 위로, 너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너에 대한 나의 기억까지 전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네가 간절하게 읽고 디이상 네가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싫고 네가 가증스럽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하는 모든 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너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접하기 싫다. 네 흔적이 기억될 만한 모든 시간, 장소, 향기, 사물, 동물, 건물, 기념품 같은 것들은 전부 불탔으면 좋겠고 그 갯가루는 네 마지막 산소였으면 좋겠다. 네 친절한, 비꼬는, 애정이 담긴, 걱정하는, 꾸짖는, 공감하는, 위로하는, 진지한, 무미건조한, 가벼운, 차가운, 웃음이 담긴, 속삭이는, 애걸하는, 아닌 척하려는, 화난, 짜증 내는, 무시하는, 당황하는, 황당해하는, 사랑스러운 말투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서 비슷하게 따라할 수도 없게 됐으면 좋겠고 너와 비슷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의 성대는 모두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너와 비슷한 머리카락, 눈의 크기, 눈의 모양, 눈썹, 외계골, 애교살, 눈동자 크기, 눈동자 색깔, 이마, 이마선, 코, 콧대, 볼, 볼살, 보조개, 입의 모양, 입술 색깔, 피부색, 지문 중 단 하나라도 닮은 형질을 가진 사람은 디이상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이 형질들의 존재를 금지시키는 국제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가 좋아했던 사람, 책, 음식, 옷, 농담, 음악, 동물, 게임, 영화, 활동, 날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너와 취향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완전히 판이해서 나에게 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려 하는 사람들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갔던 장소, 너와 함께 걸었던 거리, 너와 함께 나눴던 대화, 너와 함께 들었던 음악, 너와 함께 봤던 연극, 너와 함께 봤던 영화, 너와 함께 먹었던 음식, 너와 함께 웃었던 농담, 너와 함께 불렀던 노래, 너와 함께 맞춰던 팔찌, 너와 함께 공유했던 모든 추억들은 최소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의 끝자락으로 추방되었으면 좋겠고 너 또한 모든 우주의 영역에서 쫓겨나 명왕성마저 널 돌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너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연히 마주치는 거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네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기억만 가진 채 내가 절대 갈 일이 없을 장소와 내가 절대 겪을 리 없는 시간으로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던, 즐거웠던, 기뻐던, 그렇기에 사랑했던, 소중히 여겼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던 기억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장 매체에서 삭제됐으면 좋겠고 네 뇌가 그 기억들을 저장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오로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 수 있는 기억과 감정만 간직한 채 세상을 살아가거나 살아갈 수조차 없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네 주위 사람들과 하루 매시간 매분 매초도 빠짐없이 언쟁해야 하는,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들린 말을 듣는,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기억이 네 뇌리에 박히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생긴 슬픔, 좌절, 절망, 낙담, 고통, 비관, 아픔, 짜증, 분노, 무기력, 체념, 지긋지긋함, 쓰라림, 황망, 두려움, 공포, 후회와 같은 세상의 모든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네 심장을 관통했으면 좋겠다. 이 감정과 기억을 전부 가진 채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싫어할 때의 기분을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네게서 멀어지는 경험도 겪어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누군가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느껴지는 비참함이 칼이 되어 네 가슴을 치찰하게 찢어놓았으면 좋겠고 그 칼이 결국 너와 모든 네 소유물의 과연까지 불리었으면 좋겠다. 마침내는 그 칼을 발견한 최후의 목격자까지도 그 칼로 인해 죽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침담한, 황폐한 마지막의 순간에는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라졌으면 하는 모든 것들에 너와 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전부 사라져버린 세상 가운데 너와 나만 남아 함께 관란하게 사라지면 좋겠다. 사실은 너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

백록

최서원

창백한 설원의 목덜미를 밟고
바스러지는 눈 속에 발목을 파묻으면
하이얀 사슴의 눈이 피어난다

열은 눈꺼풀에는 지독한 매화의 향,
질은 눈의 향은 흐드러진 뿔 위로

아, 고고한 관을 드리운
순백의 짐승이여

순백이 내뿜는 경의 속에
너는 그 애처로이 긴 목을
살포시 드는구나

깊은 우울을 먹고 사는
고귀한 관의 짐승아

나를 위해 한 번만
그 흰 눈썹을 떨어주렴

그림자마저도 흰
고독의 초승달 아래

여린 목이 받치우는
애처로운 두 눈만이 빠안히
나를 쳐다본다

안개의 밤

최서원

나 사는 이곳은—
시든 안개 내리간
양귀비 핀 광맥

도로마다 붉은 울음
터뜨리는 주목은
은빛 영혼을 토해내고

가시 박힌 이름모를 넝쿨은
중력으로 들어찬
열매의 방울을 갈증하니

젖은 나뭇가지
까마귀의 검은 발을 좇아

낮의 여덟 초승달 향해
눈알을 굴러보지만

이곳저곳 정처 없는

나무 위 하얀 발바닥,
찾아 헤메는 나의 두 눈은
어디를 향해야할까

아!
바라보지 말거라, 나의 눈들아
무지개 내리는
이곳서 눈을 감으면
그것이 곧 밤인 법

어스름한 황혼에
술래의 수는 끝이 났나니

황홀한 나의 색들아
내 앞에서 달아나라
너를 찾을 수 없게 영원히-

흑백의 공기 속에서
안개의 방울만이 짙랴이며
폐부를 깊숙이 도려내니

아, 이것이 안개의 밤이로구나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최서희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나치는 바람에도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너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햇별은 한없이 다정하기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딛는 걸음 걸음 아가꽃이 피어나기를
새하얀 구름이 파란 캔버스 위 너만을 위해 그린 그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운 말만 너의 주위에 맴돌기를
그 맑은 눈에는 항상 예쁜 것만 담기기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의 꿈에 오색 공룡들과 블록 퍼즐들이 나오기를
어린 조카의 꿈을 잘라다 너의 밤에 붙였다

네가 내쉬는 숨,

노래 한 자락에도 행복을 느끼기를
친절한 햇별이 데워준 바람에

품어 놓은 바람을 가득히 담아

등실,
띄워 보낸다

참 많이 사랑하는 너에게

쏟아 24도 흐리고 한때 비

최서희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는 비가
내 머리만 적실 때가 있다

회색빛 아스팔트 바다
내 발 밑 까만
점들만 타박일 때가 있다

상공의 물푸른빛 바다
그 위를 헤엄하는
죽은 가오리 한 마리

물크러진 머릿속을 꺼내어 조각조각 다지고 짓이겨
남쪽을 간다던 해류에
흩뿌리고 싶을 때가 있다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는 비가
내 발만 적실 때가 있다.

타박이는 점들 옆에

유난히 짙짙한 짐 하나를
기어코 떨어트리게 되는
그런

그런 날이 있다

무제 I

한지우

아침의 무대에 발을 딛는다
손톱새의 스포트라이트, 너머를 볼 수 없는
아침의 무대에 발끝을 디딘다

하나, 둘, 피날레 -

휘날리는 치맛결은
배우의 손짓만큼 예측할 수 없구나!
머리칼 틈새로 뒤집히는 바람에
소품은 하늘빛과 영송(靑松) 뿐

손길 끝 가리우지 않는 해 -

보이지 않는 것의 음향이 속삭이면, 박새는 머리 위 바람을 타고 간다.

아침의 무대에 발을 딛는다
극이 끝나며 온색의 빛을 거들
스�포트라이트 너머의 바람장막 아래에서
술그늘 아래 잠든 요정과
질투하는 연인들,
아침의 무대가 펼치는 극의 배우 -

자유

잊어버린, 잃어버린

한지우

본능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도망치라고.
어쩌면 방법을 몰랐던 것일수도.
어쩌면 도구가 없었던 것일수도.
그러나 본능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탈출하라고.
네가 잊은 것을
네가 잃은 것을
찾아오라고

달렸다.

역을 찾아가는 움직임은 기계적이다 못해 자연적이었다. 마치 날 때부터 나는 그 곳을 향해 달려야만 했던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2호선에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운 만큼 가볍게 착지했다. 심장은 지하철의 비명을 잡아먹을 정도로 울려퍼졌지만 가슴은 고르게 오르내렸다. 교대, 서초, 방배, 사당. 사당역 플랫폼을 밟는 발은 가벼웠다. 심장박동은 귀를 때리는 파도소리처럼 들렸지만, 손은 지하철 진동을 따라 흔들리는 정처없는 부표 같았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뒷주머니를 더듬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11시 23분.

썩아, 썩. 썩아, 썩. 심장이 뿔박질을 계속했다.

11시 24분.

아버지의 전화는 없었다. 아버지의 문자는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이도행, 오이도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지하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둥, 두둥, 두둥. 떨림이 가까워졌다. 손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다시 파도치기 시작했다.

짹짹. 아버지의 비명이 떠오른다. 귀에 닿는 순간 *끼이* - 울리며 나를 속박하던 목소리. 불과 몇 분 전 달궈진 냄비로 맞은 옆구리가 육신거린다. 컷가가 울린다.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맞을 때와 같은 소리. 지하철 소리를 꼭 닮은 *끼이* - 우는 소리.

라면을 끓이라고 우박지르던 것은 기억도 안 나던지. 아버지는 가스 불 앞에 선 나를 보더니 갑자기 냄비를 들었다. 어이가 없었다. 나같은 놈 얼굴은 더 보기 싫다며 밤공기를 쐬려 나간 사이 나는 달려나갔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삶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악몽인지 모르겠어서.

지하철이 컷가를 지나쳐갔다. 후욱, 끼쳐오는 더운 바람은 투명한 벽에 막혀도 내 귀를 때리는 듯했다.

끼이 -

거대한 쇳덩이의 소리가 머릿속 아버지의 고향을 뒤덮는다. 어떤 것이 지하철의 소리인지, 어떤 것이 아버지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11시 26분. 아버지의 전화는 없다.

다행이다.

지하철 문이 열렸다. 심장은 파도처럼 컷가를 여전히 때려왔고 손은 여전히 부표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천길 바다 아래 묵인 돌덩이 같았다.

오이도행, 오이도행 열차입니다. 열차가 다시 한 번 울었다.

남태령,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과천역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었다.

정부과천청사역 5번 출구, 대로를 따라 뛰어 올라간다. 자연스럽고, 기계적이고, 본능적인 발걸음으로 걸어간다. 낡은 상가, 낡은 공원, 재건축한 단지들 사이 미처 부수지 못한 아파트 한 동에 들어선다. 청각은 울린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심장박동으로 인해 날카롭게 절단된다. 감각이 한 조각 한 조각 파도에 쓸려나간다. 느껴지는 것은 끊이지 않는 *삐이 - 삐이* - 무언의 경고음 뿐.

핸드폰을 다시 잡으려 마비된 팔을 들어 뒷주머니를 두드리듯 더듬는다. 덜덜거리는 손을 들어 잠금을 푼다. 021203. 틀렸다. 그의 생일은 12월 3일이 아니라 2일인데. 021202. 이번에는 매끄럽게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숫자를 누른다. *찰칵*, 잠금 풀리는 소리가 *삐이* -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울림을 가르고 시원스레 *땡*, 들린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상관은 없다.

전화를 건다. 번호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손은 덜덜거리며 화면을 두드리고, 우연히도 두드린 곳이 그의 번호와 같을 뿐이다. 기계적이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본능이다.

신호음이 간다. 컷가의 울림을 뚫고 선명히 들리는 것이 신호음인지 파도소리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받는 *탈칵* 소리가, 그의 *여보세요*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건축된 단지들 사이 나무에 감싸인 복도식 아파트, 그 복도 위에 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컷가는 *삐이* - 비명지르고 시야는 철썩이는 파도에 쓰러리다. 내 얼굴 위 한방울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모르겠다. 흐려

진 시야 앞 가득 잡히는 것이 바다인지 그의 얼굴인지 모르겠다.
한가지 생각만이 감각을 가른다.

집에 왔다.

“아침에 신고했어. 그동안 증거 모아놓은 건 있으니까 수사는 잘 될
거야.”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얼마든지 요구해도 되는 호의야. 죄책감 느끼지 마, 그거 느낄 사람
은 따로 있으니까.”

“...고마워.”

우리는 말 없이 한참동안 거실에 앉아있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이
어젯밤 꺼내신 이불을 두른 채로, 그는 목 늘어난 잠옷과 발바닥이 검
게 변해버린 수면양말을 신고. 오른손으로 이불을 꼭 쥐었다. 낡은 장
롱에 오랫동안 묵혀둔 이불 냄새가 고스란히 났다. 어쩐지 웃음이 나왔
다. 오른손을 끌어올려 얼굴을 이불 사이에 묻었다. 그가 사는 집의 냄
새가 났다.

내 앞에 앉아 강아지마냥 팔을 바닥으로 쭉 뻗은 그는 편안해 보였
다. 이따금씩 구멍이 뚫리려 하는 수면양말을 펜시리 손톱으로 뜯기는
했지만, 거의는 그 자세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
는 그가 사는 집의 냄새가 났다. 따뜻한 먼지 냄새, 짹짹한 음식 냄새,
창밖의 시린 바람을 한 가닥 걸어놓은 듯한 거실 공기의 냄새, 퀴퀴한
낡은 가구 냄새, 안방에서 테우는 전기장판의 따뜻한 냄새, 그리고 한
밤중에 끓여먹는 라면 냄새. 내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라면 냄새.
그는 그 냄새들을 향수를 뿌린 양 편안히 걸치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

해 기계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 냄새들은 그를 감쌌다. 아니, 차라리 타고 난 것이라 하는게 좋을 것이다. 타고 난 냄새, 타고 난 집의 냄새, 타고 난 사랑의 냄새. 그는 온갖 냄새를 걸치고서 나에게 그 냄새 한 가닥을 덮어 주었다. 새벽의 칼바람 향을 잔뜩 이고 온 나를 그는 어색하지도 않은지 날 때부터 그랬던 양 보고만 있었다. 내 몸을 덮은 이불의 킁킁함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공기는 가벼웠다. 아니, 마치 처음부터 무겁고 가벼움은 따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온갖 향기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내 것이 아닌 향기가.

이불을 권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불에 코를 묻고 숨을 크게 쉬어 보았다. 이상했다. 코에 닿는 공기가 마치 처음 느끼는 것인 양 낯설다. 아니, 처음 느끼는 공기가 맞다.

이 곳은 내 집이 아니고, 그는 내 가족이 아니니까.

이불의 무게가 어깁죽지를 짓눌렀다. 어깨에 메인 추를 떨쳐내고 이곳을 떠나고 싶던 참이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마저 의식되기 시작할 참이었다.

“집에 별로 맛있는 것도 없고, 라면이나 사러 갈래?”

아예 바닥에 배를 댈 듯 누운 그와 눈이 마주쳤다.

영겁결에 답했다. “그래, 가자.”

그가 일어섰다. 그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해왔던 듯 부드러운 몸짓으로 일어났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빼격대며 겨우 이불을 떨쳐냈다. 킁킁한 냄새가 사라졌다. 마음 한켠 바람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다.

슬리퍼를 끌며 그가 앞장섰다. 나는 운동화를 구겨 신고 뒤이어 문

을 닫았다. 향기가 사라졌다.

때때그랑, 마트 문 위에 달린 종이 요란스레 굴러댔다.

“저기가 라면 있는 쪽이야. 먼저 고르고 있어, 난 과자 좀 사올게.”

그가 가리킨 쪽으로 흘러가듯 걸어갔다.

새우라면, 매운 라면, 육개장 라면, 짜장라면... 온갖 라면들로 시야가 어지러웠다. 이리 종류가 많았던지. 온갖 빨간색들 틈에 홀로 끼여 있는 흰 포장에 눈에 띄었다. 라면 중에도 나를 닮은 게 있다는 것이 우습다. 흰 라면을 잡으려 왼손을 뻗었다. 오른손은 뒷주머니를 향했다.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다.

아, 쟤장.

아버지는 내 번호를 안다. 당연하겠지, 매일 죽어라 해대던 전화니까.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게 전화를 할 수 있다.

다시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덜덜거리는 손을 들어 뒷주머니를 더듬었다. 핸드폰은 *찰칵* 소리와 함께 꺼졌다.

1시 38분.

심장이 쿿전을 때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었다.

덜덜대는 손으로 다섯개짜리 라면 봉지를 들었다. 품에 안으려던 순간 흰 봉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1시 39분. 화면에는 아무런 경고도 뜨지 않았다.

핸드폰을 어기적 어기적 집어넣고 다시 라면을 주웠다. 손은 후들거렸지만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어제 입고 온 자글자글 구겨진 셔츠 품으로 라면을 밀어넣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여전히 1시 39분. 전화는 오지 않았다.

화면에는 아무런 경고도 뜨지 않았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었다.

전화는...

부르르르륵.

부르르르륵.

부르르르륵.

낡은 청바지의 뒷주머니를 때리는 울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부르르르륵.

부르르르륵.

부르르르륵.

부르르르륵.

꺾개를 울리는 파도소리가 마침내 나를 집어삼킨 느낌이었다. 몸뚱이 아리가 파도에 부유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도망가도 안되는 것이었다면 바다 바닥에서 영원히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팔에 힘이 빠졌다. 고개를 떨구었다. 바스락거리는 라면 봉투 위에 머리를 잠시 누였다. 눈을 뜨지도 않고 핸드폰을 들어 귀에 댔다. 태어

날 때부터 들어온 것만 같은 아버지의 분노를 듣기 위해.

탈각.

어, 아까 일어났다면? 오늘은 일 때문에 아줌마가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배고프면 집에 있는거 꺼내먹고, 아니면 집 앞에 마트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먹고 있어. 알겠지? 아줌마가 내일은 맛있는 갈비찜이라도 해줄게.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아니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그의 어머니다.

아, 그랬던 거구나.

풀사납게 마트 바닥에 엎드려 울고 말았다.

어디선가 매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난다. 흰 봉지에 담긴 라면을 끓이면 느껴질 만한.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왔던 것만 같은 집의 냄새.

나를 감싸는

한지우

작은 하늘 아래,
좁은 태산 아래 산다고 생각했다.

별은 나의 등대고
숲은 나의 친구다

다섯겹 여섯겹 쌓인 산 아래
12층 창문 앞에 비친 태백은
푸르게 얼룩진 물결을 닮아서일까

답답한 안개 위에,
흐릿한 바다 위에 산다고 생각했다.

문득
안개가 숨을 막고 바다의 잔물결이 머리카락을 간질일 때
안개를 헤쳐
바다를 건너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떠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가!

나는,

얼마나 자만했던가.

13층 창문 없는 하늘의 밤은

수많은 은구슬을 진열해놓는다.

묵직한 어둠 속

쫄르르 줄 선 구슬을 잡으려니,

아차.

진열장 유리에 손이 막힌다

손을 아무리 뺀어도 저리 가까운 별은 잡히지 않는다.

그제서야 욕심 많은 도둑은 깨닫는다.

숲은 나의 공기였고

별은 숲의 등대였고

별 아래, 별을 담은 하늘 아래,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이는 푸른 산은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킬

천 길의 파도

그 아래,

나는

자

그

마

한

별레

나를 감싸는 밤하늘에 흘러보낸다

이 하늘 아래,

‘나’는 없다.

비오는 날이면 종묘에 간다

한지우

비오는 날이면 종묘에 간다
토닥토닥 두드리는 빗방울의 위로에
푸-옥 잠겨진 정전의 처마
타박타박 사막이는 마른 잎의 박자에
후-옥 노래한 영녕전 바람

그것이 그리워 종묘에 간다고 했다

비오는 날이면 종묘에 간다고 했다
너의 말 따라 무작정 나선 길
골목 속살을 파헤쳐 나선 길
그 끝 햇살 걸친 정전의 처마
그 끝 구름 걸린 하늘 아래 영녕전

그곳에 너는 없다

푸르른 하늘에 얽게 흐린 먹구름
비는 오지 않았고
너는 없다

비 갠 날에 간 종묘의 숲은
비오는 날에 간 종묘보다 그리웠고
비오는 날에 간 종묘보다 울고 싶은
그런
마냥 그런 곳이었다

비오는 날이면 종묘에 간다
정전의 증후함을
영녕전의 우아를
느끼러,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너를 만나러
비오는 날이면 종묘에 가는
너를
나를
우리를
종묘를 빗속에서 보기 위하여

망각

김민정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었다.
잊혀짐이 없었다면 난 이미 몇번이곤 죽었겠지.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렸다.
손에 들린 가면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렸다.
절벽 아래 파도가 나를 때린다.
아름마져 잊었다. 물이 꽤 차갑기만 하다.

잊혀짐이 존재함에도 난 서서히 가라앉는다.
현실에서 사라져 간다. 아름다운 환상이었다.

그대

김민정

그대 혹시 울고 있나요
해맑아 보이는 웃음을 띄는 가면 속에
눈물을 훔쳐내고 있지 않나요

벗어내려 했던 가면의 무게에
얼굴을 따라 흐르는 따뜻한 눈물을
무심하게 닦아내고 있지 않나요

혹여나, 그대가
잠간의 편안함에 취해 누워있고 싶다면

가면을 벗고, 눈물에 젖은 맨살에 닿는 바람을
느끼며 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요

그리고 오늘은 고개를 들어 아결한 눈동자에 별빛을 담아요
아름다운 눈을 감고 누워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밤이거든요

그대,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일어나요
그대의 우주에서 밝은 별이 빛나지 않아도

그대 눈동자의 빛은 저물지 않을 테니

그대, 울지 말아요

달을 인연이었다면

김민정

우리가 달을 인연이었다면,

손 닿지 않는 하늘 가득 메운
구름을 살며시 걷어 너에게
더 푸르른 하늘을 보여주었을텐데

추억에 말라버린 꽃이 담긴 화병에
네가 좋아하던 향기를 담고 있는
더 아름다운 꽃을 담아주었을텐데

가끔 지쳐 눈물 흘릴 땐
어리숙한 손길로 널 달래며
더 따뜻한 품을 내어주었을텐데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며 누워
널 닮은 별의 개수를 세며
더 빛나는 별을 안겨주었을텐데

만약,
우리가 달을 인연이었다면

라일락을 그대에게

김민정

“ 아름다운 꽃이다. 아니, 아름다운 꽃이었다.
지금은 말라 짓밟혀 버렸으니. “

--

그가 나에게 건넸던 꽃은 라일락이었다.
밝은 햇빛 한 모금에 똑똑 떨어지는 비 한 모금을 먹고 자란
듯한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네가 꽃에 겹쳐 보
이기 시작했다.

소우주에서 빛나는 은하수처럼 경이로웠다.

--

점점 라일락에 물들어 가면서 꽃내음을 맡아가기 시작했다.
강렬하고 황홀한 향기였다. 내 숨결은 그 향기에 벗어나 버렸다.
폐 속에 갇혀 있던 공기를 몰아내고 부드러운 라일락 향이
담겨지기 시작했다.

--

라일락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보랏빛이었다.
참으로 묘한 색이구나 생각하던 나는 어느새 라일락을 보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알 수 없었던 감정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다.

--

라일락 한 송이는 그렇게 큰데 잎은 어찌나 작던지, 하트 모양의 작고 붉은 잎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쌓여가는 잎들이 점점 말라 가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툭 떼어 깨물어 본 라일락 잎은 무척 썼다.
부드러운 향기와는 달리, 입안에서 터진 씹쓸함은 잊혀지지 않으려는 듯 꽤나 오래 남아 있었다.

말라가는 라일락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눈물로 적셔졌고, 세심했던 내 손길은 라일락을 보듬어 갔다.
아, 내가 시련이었던가.
라일락은 넘쳐나는 호수 안에서 숨이 죽어버렸다.
나는 나를 자책했다. 나는 미련했다.

--

어느새 다가온 나의 슬픔은 모두 그에게 귀결되었다.
열게 남아있던 라일락의 부드러운 향기는 어느새 가시를 돋운 채 허공으로 사라졌다.

향기를 쫓아 달려가던 나는 허공에 주저 앉아 버렸다.
나와 함께 남은 것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적갈색의 라일락
한 송이 뿐이었다.

: 라일락의 꽃말은,

그 밤들

김태림

The Nights - Avicii

“

어느 날, 너는 이 세상을 뒤로 하게 되겠지.

그러니 네가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렴.

“

.....영터리. 이루지 못할 꿈에만 빠진 망상가들 같으니라고.

잡념을 떨치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노트북 옆에 대충 엉킨 채로 두었다. 심란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가 다리에서 몸을 던진 지 한 해가 다 되어 갔지만, 나는 아직도 그 사건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잔상이 때때로 불쑥 튀어나와 머릿속을 온통 헤집고 가기 때문이었다. 끝까지 제멋대로인 여자다.

그녀를 만난 건 8년 전 봄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 있다. 그녀는 창가 자리였고, 나는 그녀의 옆자리였다. 검지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톡 하고 계속 치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뚫고 그녀의 손과 움직이는 검지손가락을 비춰

그림자를 만들었다. 책상에 드리워진 움직임은 검지의 그림자, 술 많고 긴 생머리, 눈 깜박일 때 마다 함께 따라 움직이는 긴 속눈썹은 너무나도 황홀했다. 그 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녀를 졸졸 따라다녔다. 대학 합격 발표가 나온 후, 그녀는 나의 고백을 승낙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는 서로의 연인이었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대학 졸업장을 갖 손에 쥔 지금까지도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그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은 다 수능 준비를 한다고 책상 위에 문제집을 산처럼 쌓아놓고 공부할 때, 그녀의 자리는 미대 입시 준비로 자주 비어있었다. 입시를 하던 시절의 그녀에게 종종 그림이 왜 좋냐고 물어보고는 했다.

“그림? 별로 안 좋아해. 오래 그리면 손목이랑 허리 엄청 아파. 고개도 빠질 것 같고.”

“그림 왜 미술 해?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도 되잖아.”

“그냥 그림 그리기 전에 빈 도화지 보는 게 좋아. 뭐 그럴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스케치하는 게 재미있어. 근데 딱 거기까지 재미있어. 그 뒤로는 그냥 노가다야.”

입시 막판에는 그림이 그리기 싫다고 입시 학원을 썰고 다니던 그녀였지만, 다행히 꽤 괜찮은 대학 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합격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뒤로도 틈만 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고는 했다. 국내든, 국외든, 어디로든. 그 때문에 가끔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 노심초사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여행을 떠날 때 그녀는 흰 도화지를 한가득 들고 갔는데, 절대 그 도화지들을 다 채워 오는 법이 없었다. 반쯤 그리다 만 그림, 스케치만 한 그림, 심지어 연필로 선 하나만 그리고 난 그림……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는 그녀의 그 예술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녀의 미완성 그림들 몇 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그녀의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 내가 들여다보았을 때는 검게만 보이는 것일까. 나는 영원히 알 수 없다.

우리는 종종 한강 인근 공원에서 걷곤 했었다. 그녀가 그것을 좋아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많이 늘어놓고는 했었다. 내가 그녀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녀는 항상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마음만은 저 구름 위를 노닐고 있었다. 동상이몽. 그런 그녀를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동경했다.

“……좋리다.”

“어제 몇 시에 잤는데?”

“안 잤어.”

“뭐 하느라?”

“딱히 뭔가를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짜증 나는 일이 있어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못 잤어. 그냥 잊어버리고 잘걸. 너무 피곤해.”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저녁에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너무 싫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내. 빨리 디자인 회사를 알아 보든 학원 강사를 하든 뭐라도 알아봐서 밥 벌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인생 포기 못한다니까, 아예 이해를 못 해. 결국 알바라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끊어 버렸어.”

그날 내가 그녀에게 해준 말이 뭐였을까, 기억이 흐릿하다. 아마 그녀를 위로하려는 맥락의 말을 했었겠지. 그녀는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여행기를 출판하고자 했다. 그녀가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나에게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것들을 고르라고 했었다. 여행마다 편차가 컸지만 많을 때는 3~40장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 절반은 미완성이라 먼저 걷어내고 나머지 그림들 중에서 열대여섯 장 정도를 골라주고는 했었다. 웬만하면 색이 짙고 있고 완성도가 높은 그림들 위주로. 내가 그림을 고르면, 늘 타박을 듣고는 했다. 왜 그런 재미없는 그림들만 고르냐는 것이었다. 그 때마다 나의 그림 보는 눈을 성찰하며 그녀의 미완성 그림

들 중에서 몇 개를 넣어 다시 골라주고는 했다. 미완성 그림들을 선택할 때 그나마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고른 것은 함정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절대 미완성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었다. 비어 있는 그림들은 그 나름대로 그 여행지의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고, 나는 그림을 볼 독자들은 그 장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림보다는 구체적인 풍경의 그림이 더 낫다며 그녀를 설득시켰다. 그렇게 선택된 그림들은 50장 남짓, 중간중간에 설명이나 문구들을 넣는다고 해도 책을 출판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래서 그림 원본들은 아직도 내 방 서랍 안쪽 깊숙이 잠자고 있다. 그나마 해석이 가능한 그녀의 조각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왜였을까. 뭐가 그녀를 그리도 힘들게 했을까.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도,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압박에 혹시라도 힘겨워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급격한 감정의 변화였을까. 밀려오는 충동에 이끌려 차가운 물 속으로 몸을 떨었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그냥 발을 미끄러진 건 아니었을까. 다리를 건너다가 강을 보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균형을 잃고 미끄러진 건 아니었을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녀의 흔적들도 말이 없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서야 강 기슭에서 산책하던 주민 아주머니 하나를 기절시킬 정도로 놀래키며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나보고 남의 손에 이끌리듯 사는 인생은,

젓바퀴 돌 듯 같은 것을 반복하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보고 인생을 살라며. 네가 결정한 너의 인생은 고작 그게 끝이었어? 네 인생도, 네 잘난 꿈들에 이끌려 갈팡질팡대다가 결국 강바닥에서 그 종말을 맺었는데, 네 인생은 참된 인생이야? 적어도 내 인생은, 네가 없어도, 곳곳이 버티며 계속되는데.....

아름다운 것이기에 빨리 시든 것인가, 빨리 시들었기에 비로소 아름다운 것인가. 너는 이제 없지만 네 아름다움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계속된다. 나는 너를 기억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네 인생을 회상하는 것을 그만 둘 수 없다. 네 인생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시시함을 깨달았다. 낮은 밤고, 밤은 그보다 어두운 인생. 불타오르는 마음에 새우는 밤이 없는 인생. 아침마다 내 손으로 넥타이와 벨트를 조이는 인생. 커피가 없으면 정신이 혼미해 일을 할 수 없기에 커피와 각성제를 달고 사는 인생. 밤마다 서랍을 열어 네 조각들을 그려안고 남몰래 흐느끼는 인생.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별 볼일 없는 달라질 것 없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 긴 연애 끝에 배운 것 하나도 없는, 습득력 없는 인생.

“

*나이가 더 들면, 네 거친 인생은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살게 되겠지*

두려워진다면 나를 생각하렴.

“

그녀의 그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가 골라 준 완성된 그림들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처럼 텅텅 비어 있는 미완성 그림들이. 그것들을 그리면서 더 채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녀의 눈에는 이미 꽉 찬 그림들이었으니까. 덕분에 내 인생은 간헐했다. 허영게 비어 빠져나갈 구멍이 송송 뚫린 그 그림들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뚱뚱 뭉였다. 그토록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꿈을 들여다 본 순간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을 미처 알지 못했다.

연필과 붓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그녀가 저질러놓고 벌려놓은 일을 이어받았다. 내 인생은 아직 챗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밝은 낮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쪽을 선택했다. 시작은 집 주변이었다. 도시의 야경을 렌즈에 차례차례 담았다. 그녀가 홀로 새로운 풍경을 찾아 떠날 때 이 야경을 보며 무슨 꿈을 꾸었을까. 그 다음으로는 그녀가 방문했던 여행지들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었다. 남겨진 그림들을 보며 어떤 그림이 어떤 풍경을 그린 것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그린 것이었을까. 같은 장소에 가도 여전히 그녀와 나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밤은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기 위한 사투의 현장이다. 그녀였다면 아직 인생을 살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이다. 그 끊임 없는 사투야말로 나의 꿈이고, 희망이고, 빛이고, 열정이고, 물 입이다. 빼앗긴 인생이라고 느낀 그 시점부터 나의 생명은 시작되었다. 발목에 묶인 족쇄는 나의 자유다. 족쇄에 묶였음을 감각하기에 나는 비로소 살아 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족쇄를 부수기 위해 밤을 하얗게 태웠겠지. 그것이 부서지고 난 뒤 그녀의 사투는 끝났고, 숨이 꺼졌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끝을 맺을 즈음, 그 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녀가 치렀던 전쟁을 추모할 수 있게 되겠지. 꺼진 불씨를 회상하며 비어 있는 그림들을 마음 속 깊이 사랑할 수 있겠지.

“

이 밤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밤들이야.....

“

향기가 걷히고

김태림

백열등 일렁이는 전등갓 아래
다스운 겨울 이불 위에 자욱한
코튼 화이트 향- 혼미한 너의 안개

순백색의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현혼한 너의 자취에 어질러지면
그제야 퍼렇게 아려오는

코튼 화이트가 스르리 걷히고 남은
살결 아래 푸르게하게 문드러진
너의 냄새- 미약한 너만의 안개

암막 커튼

김태림

미동조차 앓을 만큼 무거워라
열기를 머금은 공기가 덮쳐도
직선으로 떨어지는 선이 정직해라
발레리나의 뺨뺨한 치맛자락
고이 펼친 구불거림
거인의 등판이라

칼날이 무서워라
뚫린 심장 틈새 파고드는
날붙이의 자취가 선명해
바닥에 드리운 핏자국 뜨거워라
거인이 응시하는 빌딩 끝 넘고 넘어
아지랑이 뻑뻑한 도시들을 지나치면
칼날의 장마가 그친 곳이 있으리라

상처는 아무리라
베이고 데어 살결은 쓰라려도
등 타고 내린 네버랜드
무대 뒤 참았던 숨 내쉬리라

먼지 늘어붙은 거인의 몸뚱어리
열일곱 해 대단원의 쓰린 막 그을려도
그들 드리우는 순간의 정전은 고요하니.....

AI

박서연

교정기를 삼킨 튼니바퀴가 정지할 때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이 울리지 않을 때
고개를 네 쪽으로 기울이면
머릿속에 들어찬 나사못이 왼쪽 컷구멍에서 쏟아져 나올 때
그러나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부동액조차 얼어붙는 밤 다 해진 커튼은 우리들의 녹슨 어깨를 가리지 못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진 욕설이 툭툭 터질 벽지 엄마 어 엄마 나 줄려 근데 블라인드가 안 내려가 세탁기 좀 꺼줘 제발 부탁이야 시끄러워)

이진법의 회로는 상당히 조잡하다
색맹의 안구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베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니 예민한 로봇들의 작업공간에서는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삼켜내도록

네온 레드 슈즈

박서연

해저의 하늘은 증발한 지 오래
사막이라고 적힌 이정표가 수평선을 가리키지만 뺨에는 과도
소리가 세칩니다

오차원으로 가는 마법이 얇게 발린 티켓이 필요해요
옷장 속 깊이 감춰뒀던 부츠를 반대로 신어야겠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계단을 밟고 올라선 무지개의 꼭대기에선
갈수록 짙어지는 난간 가장자리가 구두 뒷축을 감아먹고
반딧불이들을 온 몸에 휘감은 채로 나른하게 미소짓던 당신
마녀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아름다웠는데

네 드레스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화려하게 일렁이는 치맛자락의 밑단이나 거기에 달린 반투명
한 리본, 그걸 보고 흘러 달려드는 나비 같은 것들
내게도 날개가 달려 있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우린 날숨을 나눠 마신 각별한 사이잖아요

정신없이 즐거운 새벽의 연속이었습니다
차츰 오렌지보다 자몽을 선호하게 되었고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반짝이는 손자국은 네 손길
이 닿는 곳마다 새겨집니다

자꾸만 입 맞추고 싶어지는 롤리팝

금지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지, 어느새 네 유독한 드레스
는 나를 입안 가득 물들이고

나는 굴하지 않고 새파란 햇바닥 위에 우표를 조심스레 진열
합니다

눈꺼풀을 오로라 안에 담갔다 꺼내면

끈적한 방사성 키스

스텝을 밟을 때마다 주머니 안에서 녹아버린 사탕이 혈관으
로 스며들어요

야광 잉크가 피부 위에서 뒤섞이고

나는 거울 속에서 날개를 목격합니다

선물로 받은 빨간 구두 안에는 아직도 흰 발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차마 망나니를 찾아가지 못해서 오늘도 나는 너에게 달려잡
니다

브런치

박서연

(식빵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니
베이컨이 분홍색으로 부풀어 올라 날아갔다면
아니 커피 봉지에서 나무가 자랐다면
나무에서는 새카만 냄새가 났대)

간밤에 잘 씻어둔 달걀은 껍데기만 남았다

식사를 준비하자

버터 나이프의 반대쪽 끝을 움켜쥐고
살구색 지문을 떼내 토스트에 발라
완성

은 아닌가 봐

뜨거운 빵 위에서도 녹지 않는 잼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접시를 통째로 씹어먹었다

농밀한 식감

삼킨 지는 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목구멍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

나른하게

그리고 화창하게

아니 됐으니까 그냥 쏙셔넣어

프라이팬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가운데

침대 시트는 천천히 회색으로 변질되어 가고

시멘트가 자라는 병상 위에서 탈출하려는 브런치들

식탁 모서리에 발자국이 가득하다

걷는 나방

서주환

나는 나방.

웬지 모를 힘이 나를
따뜻한 방안의 불빛으로 끌어들이
나는 방충망으로 돌진한다.

탁

다시 한번

탁

또, 한번

탁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직접 나는 것을
마치 남이 끌어당기듯이
나는 방충망으로 돌진한다.

속

온 얼굴을 짓이겨
틈새를 찾아 들어오니

저 위의 불빛이 나를 비춘다.

아

내가 지금을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내 얼굴을 짓이기며,

나는 지금을 위해 여기까지 날았구나.

하며 올라간다.

그런데 내가 다가가면 저 하늘의 구름처럼 포근할 것 같던
것이

저 하늘의 달처럼 아름다울 줄 알았던 것이

나를 처낸다.

어디선가 날아온 사람의 손바닥에

날개가 부러진다.

부러지면 언제

걸어서 자유롭게

날아갈 듯이 자유롭게

검정과 하양

서주환

빨강으로 빛나는 금빛 다리 옆,
파랑으로 반짝이는 바다 한가운데,

하양과 검정의 벽 수십 개를 지나서
반짝이는 검정과 하양의 기둥들로 둘러싸인 나.

저 기둥을 나가
저 벽들을 뚫고
저 바다를 건너

검정을 둘러싼 하양 위에
갈색을 딛고 일어선 초록 속에서 살다가
새빨간 금문 위에서 죽고 싶다.

...

..

.

나도 언젠가
빨강과 파랑과 초록의 점들로 색칠된
작고 네모난 창 안에서 살았지.

알고 보니 나와 친구 사이에도 이중창이 있었어.
뭔가 울컥해서 작고 네모난 창을 던져버렸지만
창밖의 세상은 흑백이었어.

.

..

...

이제

작고 네모난 창 바깥에서, 반짝이는 검정과 하양의 기둥을
헤치고 나와

흑백 영화에 색을 입히고 싶다.

내 피로 빨강을 입히고

내 머리카락으로 검정을 입히고

나뭇잎을 따다 초록을 입히고

꽃을 따다 노랑, 분홍, 하양.

알록달록한 종천연색 영화의 마지막은

혼자라면 빨강 금문 위에서

둘이라면 너와 함께.

고흐의 일기

서주환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에서
식당에서 보이는 앞산에서
매일마다 지나는 샛길에서
노랑이 뿔어요.

노랑은 분홍과 달라서
사랑 속에 따가움을 품었습니다.

노랑은 하양과 달라서
밝음 속에 탱글탱글 물기가 있습니다.

노랑은 빨강과 달라서
주변을 싱그럽게 물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은 노랑을 품고 있을 수도 있죠.

물기가 없어서
따가움을 품을 수 없어서
무채색이었던 나는
주변의 색들을 욕망하던 나는

노랑과 사랑에 빠져서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병든 나무가 마지막까지 붙잡던 노랑은 어린아이 같아서
쉽게 빠지니까.
한 번 빠지면 일 년은 기다려야 될 거야.

공감

서주환

내 마음속 울음이
저 하늘에 비가 되어 쏟아진다.
내 마음을 적셔 주려 내리는 비가
늘 감사하지만은 않고
몸까지 적셔버리니
마음은 울어도
하늘은 맑았으면.

답

서주환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너는 그게 아닌가 보다.
물론 한때는 너를 잊고 싶어 했지만
그건 아름답지 못하게 실연을 당한 한 남자의 절규로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아.....기억이 희미해져 간다.
이제 너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가 없구나.

모태솔로

서주환

너는 그녀와 함께 있고
나는 그와 함께 있다.
너와 그녀는 3분 동안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는데
나와 그는 쳐다보기만 하면 메롱이다 이놈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앞으로 그녀와만 지내라
너 같은 건 우리 쪽에서도 빠이빠이다 이놈아

하지만
돌아온다면 환영해줄게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돌아오지 말란 뜻이다.

부부싸움

서주환

사람들이 너더러 예쁘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한테 있는 거라곤 갈색과 부드러움이고
그 부드러움 마저 속은 딱딱했던 거짓말쟁이인데
그런 너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너가 밍다
매일 네 속에서 딱딱함을 빼내어도
언제나 나를 놀리듯 어디엔가 딱딱함은 남아있고
늘 밥을 주고 물을 먹여도
날씨가 덥다고 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건 무슨 심보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당신의 것인 데다가
지금 내가 이런 것도 당신의 탓이니까
당신이 저를 책임져야 해요.

지금 네 모습이 왜 내 탓이냐 내 덕뿐인 일이지

그리고 너는 남 주면 그만이다

당신이 나를 남 줘버리면 당신이 사랑하는 내 모습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저들이 사랑하는 나도 없어지는 거죠.

내 몸에는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단단함이 심어지고

철근이 박히고

똥 냄새가 진동을 할텐데

그래도 좋으신가요?

아니, 그건 안 되겠다

아무래도 너랑 일생을 살 수밖에

검은 눈물 자국

서주환

내가 슬픔의 구렁텅이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왜인지, 어찌면 이미 빠진 뒤여서인지, 나오고 싶지가 않다.
이대로 죽어버려도 좋을 것만 같다.
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그들은?
남아있는 100년은?
원치 않게 나를 만나
사랑하고
서로 믿고
때로는 화도 냈던
그들은?
별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우연히 그들의 영혼의 일부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행복의 들판으로 나와
꽃을 피워본다.

이명준이 아들러를 만났다면

서주환

‘
좋은 철
공리질 공부꾼은
보람을 위함도 아니면서
코피를 흘렸는데
내 나라 하늘은
곱기가 지랄이다.
’

그러게. 그런데
앞으로 2년만
싫은 일 하며 살자고
다짐하며 올라오는 언덕길에 보이는 하늘이
미움받을 용기를 떠오르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골든 에이지를 그린 한 편의 현대미술이 될 수 없으니
선택하기는 해야겠지만
괴상한 최선을 선택하기엔 겁쟁이인걸
차선책이라는 놈은

갈매기가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길인걸
아니 잠깐
꼭 뛰어들 필요는 없지.
갈매기를 대신해줄 놈을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다음엔?
그냥 그렇게 끝나려고?
그럼 안되지. 안되지 말고.
이쨌! 그러면 답은 나를 죽임으로써 살려내는 것뿐이군.

화살과 민들레

서주환

화살이 땅을 볶아줘서
국궁장에 꽃이 폈더라
민들레인 것 같다

내 마음에도 꽃을 피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지

내 마음은 국궁장의 흙보다
많이 차가운가 보다.

임석(臨夕)님

서주환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최고의 길로 나아간다

설령 최고의 길이 악마의 오물로 더럽혀졌다면
나는 나의 이상한 길을 만들자

나의 관에 못이 박힐 때
나와 같은 자들에게
내 이름은 별이 되고
나의 길은 달빛이 된다

언젠간
별빛이 모여서
밤은 낮보다도 밝고 아름답기를.
그 때에 별달빛 아래서
수많은 반딧불이 별이 될 꿈을 가지고.

임석(林石)님

서주환

어제는

나의 손에서 떠나간 화살이

그저께

그녀의 마음까지 날아가지 못했다.

아쉬움과 함께 쓰라림을 견디는 내 마음의 손가락

오늘은

나의 손에서 떠나간 화살이

오늘

그녀의 마음 옆을 지나가더라

자책과 함께 뜨거움을 견디는 내 마음의 손가락

내일은

나의 손에서 떠나간 화살이

모래

그녀의 마음에 꼭 박히길

설렘과 함께 기다림을 견디는 내 마음의 손가락

임석(琴鳥)님

서주환

어제 아침에 어디서 두 번째 내가 태어났고
어제 오전에 어디서 세 번째 내가 태어났고
두 번째 나는 죽지 않는데
세 번째 나는 죽었다 살았다 또 죽고
이러는 와중에
새벽부터 작은 내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한 번에 수십 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는 다른 나보고 '너'는 가짜야! 내가 진짜야!

해질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죽었다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고

생사만 문제가 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열댓 명이고
돼지가 나쁜 놈이고 소가 신성한 놈이고
나 닭겠다고 머리를 박박 미는 놈도 있는데
내 그림을 보면 장발이고
외동아들인데 누나랑 결혼하고
오밤중인 지금은 수천의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제 나도 내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분명 지난 일 년 동안 나는
있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냥 있기만 하면 됐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아무리 내가 만든 별이라지만
내가 별만큼 많아져서 지지고 붉고 싸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었다 살았다
아, 피곤하다.

내일은
다시 있는 그대로.
수천의 내가 아니라
나의 수천이 되기를

최상

왕동현

으악!

탁.

쿵.

지방자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도블럭이 나를 배신할 줄이야. 숨. 아프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만약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면 **사망하셨을 겁니다.**” 생일선물만 받은 괴상한 기계- ‘초이스’ 라고 하던가? 가 친절하게 말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기는 누가 죽어...라고 생각한 순간, 둔탁한 ‘퍽’ 소리와 함께 세 발자국 앞에 화분이 떨어져서 깨진다. 산산히 부서지는 화분의 파편이 하나하나가 분명히 모두 나의 머리에 꽂혀 있었을 것이다.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이 기계, 설마, 설마,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야?

그 후로, 나의 삶은 ‘좋은 선택’ 들로 가득 찼다. 라면을 쏟아 버린 것도 ‘좋은 선택’ (라면을 쏟지 **않았다면** 맛있게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을 것이다), 수강신청시간에 자다가 원하는 강의를 놓친 것도 ‘좋은 선택’ (그 강의를 들었다면 F를 받고 대학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진 것

도 모두 ‘좋은 선택’ (멀쩡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폰을 하다가 지하철 시간을 놓쳤을 것이다.) 이다.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알려주는 기계 “좋은 선택이십니다. 방금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100만원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이크. 이게 뭘 소리지. 생각에만 잠겨 있다가 버스를 놓쳐버렸다. 내 버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버스가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결국 전봇대를 받고 말았다. 나는 소름이 확 돋았다. 좋은 선택... 수강신청에 성공했지만 F 를 받고 쫓겨난 친구... 나는 지금까지 좋은 선택만을 해 왔다. 그리고 기막히게 잘 맞지 않는가?

쿵

턱

으악!

뱅뱅 돌아가는 세계. 흐릿한 시야. 깨진 유리창. 고통. 피. 고통. 사이렌. 우지직. 아.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내가 등신이다. 불빛이 번쩍거리고 흐릿한 상들이 몰려온다. 그러나 분별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셨을 겁니다.” 이게 뭘 소릴까. 그래. 내가 술 취해서 걸어가던 도중, 불량배의 칼에 찔리는 걸까. 칼에 찔리면 이것보다는 아프겠지. 아니면, 나는 대리운전을 빌렸을까. 대리운전사가 장기매매범이었을 수도 있겠네. 아니면, 그 차도 사고가 나

서 불에 타서 죽는 길지도 모르지.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심하다 하니까. 어쨌든, 나는 좋은 선택을 한 거구나. 나는 미소를 띠며 눈을 감았다.

-

“그래,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를 알려 달라고?”

침침한 방에 컴퓨터 한 대만이 빛을 내고 있다. 세 명의 청년 아저씨들- 두 명은 낮은 테이블에 앉아 포커를 치고 있었다 - 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을 뵈히 쳐다본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자동문 닫히는 소리만이 들려온다. 나는 용기를 가다듬는다. 1년 동안 <초이스> 의 개발자들을 찾아 나서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50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이 <미래예측기계> - 슈뢰딩거의 양자역학, 평행우주이론, 인류 과학의 궁극체 - 를 만든 것은, 여기 있는 단 3명인 것이다. “개발자님! 저는 믿어도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초이스의 코드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겁니다.” 그 개발자는 놀란 표정이 되더니 다른 2명과 함께 수근거렸다. “좋아. 여기 와 보게.” 그 둘이 방금 치고 있던 포커판 이었다. “보자.. 나는 올인일세.” 그는 지고, 모든 코인을 빼앗겼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올인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작렬통에 휩싸여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쿡쿡 웃었다. “들었지?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 작렬통에 휩싸여

죽는다네. 뭐 해괴한 소리도 다 있나 싶지?” “어.. 그것은,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돈을 조금만 잃었을 것이고, 그럼 돌아가는 길에 술을 마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 그럼 포커 게임을 계속 해보지.” “좋은 선택이십니다. 에이스를 바닥에 던지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겁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셨을 겁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카드를 찢어서 먹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잃으셨을 겁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카드로 종이 비행기를 접지 않았다면 작렬통에 휩싸여 사망하셨을 겁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

컴퓨터 화면에서 단순한 코드가 깜빡거린다. [행동] 을 했을 때, “좋은 선택이십니다. [행동] 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다침, 가족의 사망, 100만원 손실, 1억원 손실, 경미한 부상, 크게 다침, 사망, 작렬통에 휩싸여 사망, 평생 후회 중 하나} 었을 것입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신들은... 모두를 속인 건가요?” “속다니, 말조심하게. 우리는... 그래,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이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은가? 사람이라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법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 제품을 산 50..아니, 53억 명의 고객은 훨씬 행복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네.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많겠지. 하지만, 고객들은 절대 이 기계를 불신할 일은 생기지 않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지. 몇 번의 우연 만 겹쳐 주면 철석같이 믿게 되지. 방금 전의 자네처럼 말이야.”

“우리도 돈을 벌고 말이야!”

웃음소리와 함께 “좋은 선택이십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면 작렬통에 휩싸여 죽었을 겁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나는 비척비척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

—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100만원을 잃었을 겁니다.”

“100만원만 잃었잖냐.”

“다시 포커나 치지 그래? 은근슬쩍 빠지거나 말라구.”

잡초가 나무를 위로했습니다

최산

오늘은 겨울이었습니다.

한여름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무들은

하나, 하나 잎을 떨어뜨리더군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잎은 나무의 꿈이고 가족이니까요.

어떤 나무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군요.

그래서 잡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시에, 나무는 잡초를 내려보았습니다.

그 둘이 동시에 깨달았던 건,

아아 그런 것입니다.

나무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랍니다.

잡초도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잡초가 나무를 위로했습니다.

잡초는 겨울이 오면 죽지만,

나무는 겨울이 오면 아플 뿐

결국에는 다시 자랄 것이라 했습니다.

잡초가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에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나무를 바라봅니다.

잡초가 나무를 위로했습니다.

너를 재정의하다

최산

오늘에서야 결론을 하나 내리고자 한다.

너는 틀렸다.

나는 시도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

네가 말하는 옳음이 정녕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는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틀렸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도화지처럼 뻥한 답이었는데

왜 몰랐을까

너는 틀렸다. 단언할 수 있다.

너는 이런 말들이

자신을 향한 덧없는 비난이라 생각하고

나를 하나의 틀린 힘으로 간주하겠지

그러나 그건 너의 큰 오만이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좋겠다.

너라는 존재가 아주 사라져 버리도록.

왜냐하면 너는 틀렸으니까. 오답은 사라져야 하니까.

태어나서 세 번째로 살인충동을 느끼게 해 준 너에게

아름다운 건배를.

아, 아아

너의 피로 적시는 적색 와인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는 오늘에서야 너를 재정의한다.
사람에서 오답으로.

제 3부 : 백일장 이야기

1. 가을의 산문

공(空)간의 모나리자

아네모네

옛사람에게 여행의 정의는,
오늘날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뇌를 스친다.

13살짜리 아이는 당돌했다. 그 위대하다던 불란서의 어느 박물관 어느 천장 아래, 아이는 다리를 외고 꼬고 앉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모나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방을 가득 채우던 관광객의 열기가 아직 덜 식었고, 오래되고 넓은 방에는 어느새 아이와 엄마, 그리고 아이의 동생만이 남아있었다. 밤 9시 55분,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다.

‘모나리자를 우리 가족만이 독점하고 있다니-’라며 아이가 전을했다.

다리가 찌르르 떨렸다. 손끝이 움찔거렸다.

‘옛날의 여행자는 외롭고 쓸쓸한 방랑시인이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정신없고 산만해도, 자유롭기 때문에 행복한 바보들의 무리였을 거야.’

아니, 적어도 그들은 우리같이 우르르 몰려다니지는 않았어.

아이는 여행 내내 어디에서든 마주쳤던 단체 관광객들의 모양새를 떠올렸다. 좌석을 거쳐가는 이미지의 잔상. 그 중에는 조금 전까지 모나리자 앞을 우글우글 점령했던 무리들의 모습도 있었다. 아이는 조소했다. 빨간색, 혹은 파란색 버스가 미끄러지듯이 주차된다. 이내 시끌벅적한 인간들의 집합이 내린다. 여기저기서 플래시 소리가 피어난다. ‘찰각.’

다시 한 번 피어난다. ‘찰각.’ 세상 어떤 고요한 유적지도 공간을 점령한 소란스러움에 맥아리를 못 춘다. 하물며 밀폐된 공간이라니. 땡- 아이의 골이 울렸다. 여전히 빨강고, 파란 버스들은 꾸역꾸역 셀카봉을 든 사람들을 뺏어내고 있었다.

현란하다.

때로 모인 사람들이 뺏어내는 소리는, 아니, 소음은 저속했다. 높낮이도 언어도 다른 소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공간의 가장 조용한 구석자리에까지 진득하게 엉겨 붙는다. 상상 속의 번잡함에 아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상상 속인데 머리가 울린다니, 말도 안돼-’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소음을 뒤로 하고, 아이는 그림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은 희뿌연 선들 너머 액자 안에 고상히도. 그래, 고상히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세속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홀로 고아하게 존재했다. 아이는 그 모습이 왠지 미웠다. 시끄러운 관광객이 몇 번을 스쳐 지나가든지 ‘리자 부인’은 저렇게 조용하고 우아하게 앉아있을 게 아닌가. 희여멸건한 빛을 두르고, 조용하게.

뇌가 회전한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부유하는 와중에 눈은 여전히 그림에 고정되어 있다. 눈 아래에서는 단지 글자뿐인 지식들이 떠오른다.

아이는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열심히 책을 읽었더랬다. 아이에게 여행은 읽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누구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였으니. 드디어 책 속 글자들이 눈앞에 떠오른 날, 아이는 감동에 젖어 몸을 잘게 떨었다. ‘그게 벌써 70일 전쯤이었나-’하고 아이는 기억을 더듬었다.

역시 글자와 세상은 달랐다. 머릿속 지식은 이토록 많은 색들을 담아내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했다. 분명 아이에게 이미지의 실체화는 과분한 축복이었다. ‘남은 30일까지 더하면-’ 아이는 무려 100일 동안 매일 매일 새로운 자극을 겪은 셈이었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이는 오만했다. 오만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이국땅에서 길을 찾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개미떼처럼 몰려다니고, 버스가 뺏어내는, 관광객들을, 무의식중에 아이는 하등하다 단정 지었다.

우월감이었다. 그들과 다르게 나는 '사색'을 하며 여행했다는, '나의' 여행만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그래서' 아이는 손가락을 허공으로 내질렀다. 손끝에서 하이얀 실이 뺏어나와 전시실 안의 유일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을 가득 채웠다. 년덜머리가 난다. 새하얀 실들이 발끝을, 코끝을, 손끝을 연결한다. 그렇게 아이는 낮은 나라, 높은 명성을 휘날리는 박물관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시선은 여전히 그림에 고정된 채로.

그림만큼 녹진한 세월을 자랑하는 액자는 적갈색이었고, 모나리자는 은은한 미소를 흘뿌리고 있었다. 드넓은 전시실에 아이가 남아있었다. 그 넓은 방에 혼자 있었다.

그리고 모나리자 위에는 방탄 유리덮개가 씌워져 있다.

짧은 여행의 세 가지 선물

22기 이현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 이미 넘어진 나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세상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투정도 부러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 때. 계속 현실 속에서 버둥대는 것보다 아주 잠시만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학기에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소중한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마저 잘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문득 잠시 짧게나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눈물을 쏟아 이미 다 메말라 버린 눈을 깜빡이며 엄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디라도 좋으니까 나 잠시만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나랑 하루만 여행을 떠나요.”

갑작스러운 전화였음에도 엄마께서는 이유를 묻지도, 왜냐고 따지시지도 않고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셨다. 이틀 뒤, 엄마로부터 ‘춘천 여행 계획 짰어.’라는 문자가 왔다. 내 한 마디에 다른 일들은 미뤄두고 바로 여행을 준비해 주신 엄마께 말로는 다 못할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춘천 여행은 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첫 선물이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주저앉아 울고 있던 나에게 언제나 곁에 날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가족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 말이다.

그 주에 바로 귀가해 엄마와 날이 밤자마자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그동안 복잡하기만 했던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눈물 대신 미소로 세상을 바라봤다. 힘들었던 일상 속에서 멀어져 바라본 세상은 아름다운 것 투성이었다. 기차에 타 보이는 지나가는 나무들과 높이 나는 작은 새들, 그리고 푸른 풀 사이사이에 작게 핀 들꽃까지. 모든 것들이 온몸으로 내게 봄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본 춘천의 모습은 더욱 경이로웠다.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나를 반겨줬다. 입을 살짝 벌리고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나에게 엄마께서 뭘 하고 싶냐고 물으셨다. 대충 이동 경로를 계획하긴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여유를 즐기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일단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먹고, 남이섬을 간 다음, 김유정 문학관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내 의견을 바로 수용해서 닭갈비집을 찾아보셨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확연히 다른, 시골의 정취가 물씬 나는 닭갈비집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엄마와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내게 하고 싶은 말과 엄마의 사랑을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짙라인을 타고 남이섬에 갔다. 남이섬은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빛나는 햇살과 자연스럽게 깎아 만든 나무 조각상, 소박하지만 맑은 연못이 어우러져 내가 미소를 머금게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춘천 여행이 내게 준 두 번째 선물이었다.

수려한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엄마와 풀밭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 봤다. 밝은 햇살이 눈을 따갑게 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했다. 엄마의 부드러운 손을 꼭 잡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행복이 내 몸을 휘감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이섬 구경을 끝낸 후에는 김유정 문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웅장하고 큰 박물관과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김유정 작가의 흔적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가 쓴 가슴이 먹먹해지는 문장들을 보면서, 향긋한 바람을 느끼면서, 발 밑의 풀의 촉감에 간지러워하면서, 나는 마음 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아픔, 고민과 슬픔을 하나씩 녹여 갔다. 힘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치유됐다. 후련해진 마음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 눈물이 맺힌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너무 힘이 들고 울고 싶을 때는 가끔 쉬어가도 좋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춘천 여행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몇 주씩 다녀온 긴 여행이 아닌, 단 하루만의 짧은 여행이었

지만, 춘천 여행은 내게 세 가지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사랑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는 그 세 가지 선물을 마음 속에 품었다. 이제는 심장에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서 날아갈 수 있었다.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바라며 난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어머니-혀 Mother Tongue

23기 한지우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

그래, 물어본 내가 바보다.

몇 번의 의미 없는 실랑이 끝에 생각해 낸 가장 괜찮은 질문이 이름을 묻는거라니.

깔끔하게 포장된 회백색의 보도블럭길과 깔끔하게 자라는 갈색으로 푸석 익어버린 가로수들. 바스스 소리를 내는 짙은 흙빛 잎들이 허연 길 위에 투둑, 떨어졌다. 깔끔한 길 위 깔끔하게 떨어지는 낙엽이 바삭, 자동차의 웅성거림에 사라져버린다.

깔끔한길 위 깔끔하지 않은 외국인 하나와 외국인 하나. 아니, 그는 이곳에서는 외국인이 아닐 터였다. 깔끔한 길 위 깔끔하지 않은 외국인 하나와 모국인 하나. 우리의 대화는 정확히 바다 하나 땅 하나의 거리를 두고 갈라져 있었다.

베를린 시내의 유대인 박물관 앞에 서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 외국인만큼 허무한 인간이 있을까? 아니, 시내인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곳은 시내였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 무슨무슨 거리에서 독일의 문화를 즐겨보세요!’라는 여행 광

고 따위 본 적이 없었다. 시내인지 시내가 아닌지도 모를 어딘가에 서, 무슨 언어를 끼워맞춰 나와 대화를 하려는지도 모를 외국인에게 내 모국어를 내던지고 있다.

허무하다.

애초에 내가 왜 독일에 왔던가.

애초에 내가 왜 독일에 왔던거지.

무언가를 배우러 왔던 것 같기는 하다. ‘무언가’가 무언가인지는 무언(無言)의 머리에게 물어 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봐, 내가 뭘 하러 이곳에 왔었지?’

‘-----?’

허무하다.

망

|

|

“-----.”

할.

욕을 하려 해도 그놈의 알아들을 수 없는 음운이 말허리를 잘라먹는다. 시원하게 뺨어가던 외마디 욕이 혹 갈겨진 가로선에 두마디 욕으로 동강난다.

외국인의 표정은 우스꽝스러웠다. 말하자면 곤충 애호가가 눈앞에서 평범한 나방 한 마리가 바삭, 하며 밟혀죽는 걸 본 얼굴이랄까. 연민, 돕지 못한 자신에 대한 답답함, 그럼에도 적

절히 섞여들어간 무관심, 타인의 일이라는 묘한 거리감. 그는 내게 미안해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내 짧은 영어로도 구사할 수 있는 문장, 'I'm sorry'를 뺀고 싫어한다는 것이 일그러진 눈썹 새에서 읽어졌다. 그런데 어찌겠나. 그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타자의 벽 너머에서 보내오는 처진 눈초리와 경직된 입꼬리 뿐인데.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획획 흔들어 놓은 가로줄 하나일 뿐인데.

무엇보다 나는 그에게 내 대신 미안함을 느껴달라 부탁한 적이 없었다.

“아, 예 괜찮아요. 하던 일이나 마저 하셔, 어차피 말해봤자 대화도 안 되는데.”

내가 손을 내저으며 흐려지는 고갯짓과 목소리로 그를 배웅하자 그는 일그러진 눈썹 새로 우울한 미소를 지으며 유대인 박물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을 밝은 발이 떠난 뒤 공기의 흐름에 파르르 떨리는 나방 파편을 보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멈칫, 발걸음을 돌렸다 이내 갈 길을 가는 곤충 애호가의 표정이었다.

뻗한 소리지만, 푸른 눈에 노란 머리칼이든 노란 눈에 푸른 머리칼이든 느끼는 건 다 같은가보다.

푸른 눈에 노란 머리, 잔뜩 일그러진 가로선으로 대화하던 외국인이 떠난자리,

나는 파르르 떨리는 나방의 잔해처럼 유대인 박물관 앞에

서 있었다. 단절된몸 조각에서 뭉개져 나온 점액질 피가 식어가며 길바닥에 철썩 붙어버린 것만 같았다. 독일에 온 지 한 시간째였다.

애초에 내가 왜 독일에 왔던가. 무언가를 배우러 왔던 것 같기는 하다. 말하자면 유학이었다. 독일, 나치즘, 세계 제2차대전. 거창한 역사의 기둥들이 세워진 땅에 가면 무언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유학은, 다른 말로는 도피성 여행이었다.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내던지려 온 것 같기도 한 여행이었다.

어차피 나를 돌봐줄 어머니도 없었던 땅, 모국어 따위에 애착을 가지지는 않았다. 나름 머리를 굴러먹어 살아보겠다고 사농공상 중 첫째로 오는 ‘사(士)’를 택했건만, 한자로 쓰인 ‘역사(歷史)’를 바리바리 싸들고서 알파벳을 씹먹는 독일 땅에 오니, 죽이 맞을 리가 없다. 어쩌면 독일에서 역사를 하겠다는 게 내 삶의 역사를 닮아 이 땅에 이끌렸는지도 모르겠다.

바다를 건너든 땅을 건너든 무엇 하나는 건너야 하는 타국은 그리 무섭지도, 멀지도 않았다. 비행기 하나면 하루의 반도 안 걸리는 나라가 두렵지는 않았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으니. 나는 불타는 장작더미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바다 하나, 땅 하나를 건넜다. 허무함의 농도가 나를 그 땅으로 밀어냈다. 대한민국 땅 한국어가 주는 허무감은 유럽

땅 독일의 말이 주는 허무감보다 컸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다.

내가 이곳에서 유일하게 만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한 젊은 이민자였다. 그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던져지지 않았고, 구슬 목걸이처럼 알알이 엮여 부드럽게 굴렀다. 되려 그가 말하는 한국어는 위태위태한 쟁가 불럭들처럼 타각, 타각, 쌓여가며 나왔다. 듣는 이를 불안하게 하는 문장들이었다.

다행히 부모님 대신 내 생계를 책임지던 친척집은 부자였고, 다행히 베를린의 대학교 근처 허름한 셋방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처음 내민 가을 날에 그는 내 옆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

“아, 당케 당케.” 내가 할 줄 아는 몇 마디 안되는 독일어 중 하나가 감사합니다, 였다. 일단 감사하고 보면 누군가와 싸우는 일은 없을테니. 연신 ‘당케’를 외치며 나는 빗바랜 노랑머리를 짧게 자른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신기하게도 집에는 군데군데 색이 바랜, 돌을 깬 계단이 있었다. 잔뜩 굵힌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자니 돌판이 깨질까 겁이 났다. 캐리어는 연신 쿠궁, 쿠궁, 소리를 내며 계단과 싸우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였다.

끼-----익. 문소리가 막힘 없이 나며 정면의 상처투성이 나무문이 열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 순간, 그가 손에는 노트북을 든 채 담요가 엉킨 발을 끌며 문 밖으로 나왔다.

까만 머리칼에 까만 눈, 키가 크지 않은 그는 거칠고 들성들성 난 수업이나 발을 구속하는 꼬질꼬질한 천쫓가리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듯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독일어의 거친 소리를 닮아있었다.

“-----?” 그가 물었다. 나는 답할 수 없었다.

“-----?” 고개를 가우똥하더니 이번에는 언어를 바꿔서 묻는 듯 했다. 프랑스어 아니면 이탈리아 어이리라. 눈살을 찌푸렸다. 내 동작이 ‘난 당신 말 못 알아들어요’라는 문장으로 번역되기를 바라며.

그가 고개를 획 틀더니 머리를 박박 긁기 시작했다. “아이 씨 ---”

“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손에서 캐리어가 쿵, 떨어졌다. 그러나 돌계단이 갈라질 것이라는 염려는 할틈이 없었다.

“혹시 한국 사람이예요?”

“어, 음, 그러니까 ---” 그가 한참 눈을 감더니 끄응, 앓는 소리를 냈다.

“예.”

그날 밤, 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짧은 대답 하나에 왜 이리 시간을 많이 쏟았나 의아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왜 시간을 더 쓰지 않았는지, 아니, 어떻게 그리 짧은 시간 안에 답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그는 작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글을 쓰지 않았다. 그가 설계하는 세계는 독일의 언어를 주춧돌로 삼았고, 그가 빚어낸 인물들은 독일어로 소통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독일어로 한국의 배경을 엮어냈고, 독일어를 하는 주인공들은 대개가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었다. 그의 소설은 끊임없이 독일어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듯, 그는 끝없이 한국 땅을 갈망하는 듯 보였다.

한번은 그에게 물었다. 그리도 한국이 그립고 그리우면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어차피 당신도 나와 비슷하게 공부를 하러 이곳에 왔다 놀러 앉았다고 했으니 다시 돌아가면 그만 아니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 돈이 없어. 둘, 돈이 있어도 못가.

그는 나를 보고 ‘내 과거 같아,’라고 중얼거리고는 했다. 그의 방 혹은 내 방에 마주앉아 술을 마실때면 그는 내게 역사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 역시도 베를린에 있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었다. 세계 제 2차대전, 유대인의 역사였다. 특히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독일에 살다 헝가리로 체코로 영국으로 도망

을 간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와 함께 독일 전역의 홀로코스트 기념물을 보러 다니고는 했다. 그의 설명은 완벽했고, 어느 학교에서 듣는 수업보다 훌륭했으니까. 기억력이 좋은 그는 자신이 학창시절 들었던 작은 농담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빌린 그의 옛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듣는 셈이었다.

기껏 들어간 학교는 내 발로 뛰어나왔다. 언어를 모르는 채 배우는 ‘사(士)’의 정신은 ‘사(死)’와 다름없었다. 그를 도와 출판사에서 자잘한 일을 하게 되었고, 학교 강의는 그와의 여행, 그와의 술자리로 대신할 수 있었다.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모두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언어만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을 몸서리치며 거부했다.

독일에서의 첫 가을을 지나보내고 겨울, 다시 봄이 되어갈 때쯤이었다. 여전히 길가를 걸으면 들리는 것은 꼬부라진 가로줄의 얽히고 설킨 뿐이었다. 귀를 사악, 스치고 가는 수많은 실들의 사이에서 나는 영커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어리였다. 가로줄, 가로줄, 가로줄 뿐인 문장들은 그물처럼 나를 속박했다. 몇 달이나 지났으니 귀에 들어올 법도 한 이 땅의 말은 야속하게도 ‘당케, 당케’ 인사를 하며 나를 스쳐지나갔다.

감사하기는 개뿔. 나는 이 땅의 언어에게 감사인사를 할 수 없었다.

2월의 끝물이었던가, 3월의 시작이었던가.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비워냈다. 더럽게도 잔뜩 울어대면서.

한국에서의 내 삶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곳에는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이 있다. 나는 원래 그곳에 살지 않았다. 다만 옮겨졌을 뿐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녀석이니, 자의에 따라 옮겨다닐 자유는 없는 게 당연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버림’은 한 명의 부모에게서만 나타났다. 아니, 아예 버림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을것이다. 어찌면 ‘버림’이 아닌 내 의지로 행해진 ‘떠남’일수도 있다.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어찌 되었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머니는 무관심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싫어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희망이자 유일하게 남은 골칫덩어리인 나를 당신의 부유한 친척들에게 떠넘기셨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판도라의 상자를 관리할 자신이 없어 더 믿을만한 이에게 양도하는 격이었다. 아버지의 친척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을 만한 자제심이 있는지, 혹은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 골칫덩어리로 전락시켜 버릴지는 시간이 답할 문제였으리라.

다행히도 친척들은 상자에 무관심했다. 그들은 적당히 상자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기만 했고, 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지 않았다. 나를 괜찮은 머리는 내게 ‘아버지의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상자와 달리, 나는 무언가와 의 교감을 요구하는 어린 애일 뿐이었다.

할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말이 있다. 같은 이치였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새 '가족'을 애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 날 때부터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던, 이미 떠난 어머니에 대한 후회만은 머릿속을, 마음속을 박박 긁다 보면 한 두 조각쯤 떨어져 나오고는 했다.

후회가 아닌 허무함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허무함도, 후회도 아닌 슬픔일수도 있다.

그도 저도 아니면 그저 증오일수도 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물음표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곡선 하나일 뿐이었다. 그냥, 왜? 왜 어머니는 내게 무관심했고,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나를 존재하지 않는 귀신인 양 무시했으며, 왜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와 싸운 후, 나를 토닥이며 한숨을 쉬어야 했는지. 그 다음은 미각이 반응했다. 식도와 혀바닥에는 무언가 씹쓸한 덩어리가 걸린듯 침을 삼킬 때마다 쓴맛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결국은 한가지 생각만이 남을 뿐이었다. '이 나라에 내가 설 곳은 없다.'

2월 혹은 3월의 그날 새벽, 나는 그 앞에서 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쓴맛의 파도를 그에게 화약, 쏟아냈다. '나는 나는 한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 사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내 과거를 던져버리고 싶어서 온거야. 그런데 이 곳에는 내가 서기는

커녕 앉아있기도, 누워있기도 힘들어, 말 한마디 꺼내는 게 힘들어.’ 그렇게 파도는 한참이고 그에게 쏟아졌다. 썩아 ----. 썩아 ----. 끝없는 파도에 그가 질식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지는 않았다.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나조차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

썩아 ----.

썩아 ----.

“잠깐.” 그가 나를 멈춰 세웠다.

“너는.” 그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한국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머리를 긁고는 했다.

“한국인이야?”

그는 한국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 도망치고 싶어 독일에 왔고, 독일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그의 고향이었다. 마치 독일에 살던 유대인 같은 처지였다. 독일은 그들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도망쳤고, 미국인, 헝가리인, 영국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향은 독일이었고, 그들은 그 땅을 그리워했다.

나는 그와 같은 처지였던 것인가. 한국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독일인이 되기로 결심했는가, 그것은 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어디로 떠났던 것일까, 한번도

고민해본 적 없는 문제였다.

어머니는 아마, ‘어머니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어머니는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한 채 나를 키우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호통도, 나를 향한 사랑도 아닌 ‘모국어’였을 것이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독일인이야. 다만 한국을 그리워할 뿐이지.”

나는 답했다.

“나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나라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인 것 같다.”

그가 술잔을 기울여 한 모금을 들이켰다.

“-----.”

“응?”

“어머니. 독일어로 어머니라는 뜻이야.”

“어머니라...”

“어머니.”

순간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독일어가, 더 이상 가로선이 아닌 단어로 다가왔다.

“어머니...”

그를 따라 나지막이 읊었다.

독일에서 지낸 지 다섯 달인지 여섯 달인지 모를 그 날, 새벽의 해가 밝아 왔다.

비움으로 채운 것

22기 김수민

‘사소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것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왜 이렇게 단조롭지? 수학을 먼저 할까, 과학을 먼저 할까?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 언제 해야 하지? 지금 찾아가면 바쁘신 건 아닐까? 앗, 내가 방금 행동을 잘못했나? 하지만 그녀는 혹여나 이 걱정들이 잘못 받아들여질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요동치는 생각을 아는 건 세상에 단 하나, 초롱이뿐이었습니다.

초롱이라는 초록색 체크무늬 베개는 소녀가 다섯 살이었을 때부터 소녀의 잠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매일 밤 초롱이는 자신을 꼭 껴안고 꼬인 생각들을 풀어나가는 소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어떤 날은 신이 나서 그날 하루를 빛나게 했던 일에 대해 조잘거렸고, 어떤 날은 체크무늬가 며칠간 묵혀뒀던 눈물로 번질 때까지 쏟아냈습니다. 소녀의 어린 여동생은 웬지 모르게 늘 초롱이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소녀가 낮잠을 잘 때 영금영금 기어와 초롱이를 낚아채가기도 했고, 숨바꼭질을 할 때 자기 대신 초롱이를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녀는 평소의 조곤조곤한 말투를 싹 치우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젠는 참다못한 소녀가 동생에게 십 초간 초롱이

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신 앞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승낙한 동생은 초롱이를 깔고 앉아 언니가 하듯 체크무늬에 얼굴을 부벼대다가 잠깐 생각하더니 마구 밟으며 뛰어놓았습니다. 소녀는 초롱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십! 하면서 초롱이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동생은 초롱이를 수도 없이 건드렸습니다. 소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소녀의 엄마는 하도 껴안고 부벼대서 베지도 못할 만큼 너털너털 다 떨어진 초롱이를 버리겠다 선언했습니다. 소녀는 초롱이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매일 천 번씩 줄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녀가 “구해낸” 초롱이는 그 후로부터 7년간 소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녀의 이야기는 동생과의 투닥거림부터 진로 고민까지 넓어지고 깊어져 갔고, 초롱이 역시 점차 너털너털해져 갔습니다. 초롱이의 커버가 터지고 희끗희끗한 흰머리처럼 솜뭉치가 보였지만, 소녀는 계속 조용한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는 소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듯 말없이 그 고민과 걱정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초롱이는 소녀가 마침내 안경을 벗고 맨 볼로 자신을 껴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현실을 도피하면서도 현실을 직면했고, 세상에 의문을 던지면서도 세상을 포용했고, 자유롭게 꿈꾸면서도 그 꿈의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초롱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방문하신 할아버지가 다 헤어진 낡은 베개를 보고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만큼 초롱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망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장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으나, 괴물 같은 쓰레기차가 오물더미를 퍼 나르고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순간 소녀는 오물더미 속에서 초록색 체크무늬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고, 소녀는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본 소녀는 급하게 눈물을 삼키려다가, 그냥 뱉어내는 것이 덜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주머니께 그날의 일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초롱이 없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그냥 들어 주셨습니다.

눈물로 흐려졌던 시야가 또렷해지자, 소녀의 눈에 그녀를 둘러싼 쓰레기더미가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깨진 손목시계와 색색의 풍선조각들, 신중한 끄적거림으로 가득한 노트패드를 보았습니다. 또 갓난아기의 발에 이체는 맞지 않을 조그마한 신발도 보았습니다. 한때 어떤 웅장한 거실의 일부였을 빛바랜 소파와 책꽂이도 보았습니다. 기억이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사물들은 보내지지만, 그들이 촉발하는 순간들은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바구니를 비워야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잡고 있기보다 행복하게 추억해야 함을 알려준 이 이별이 소녀가 지금까지 겪어본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정류장

22기 김중현

밤공기가 차다. 오후만 해도 하얗다 못해 노란 햇빛이 아지랑이를 피웠는데 말이다. 버스 시간표에는 9시 20분 막차라고 거의 다 지워져가는 네임펜으로 적혀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혹시 모른다. 어떤 시골 꼬마 아이가 네임펜을 가져다 장난을 쳐 놓았을지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왜인지 그 꼬마가 밋지는 않다. 손으로 주머니 속에 든 500원 동전 1개와 100원 동전 3개를 만지작거렸다. 짹짹하는 소리가 정류장 주변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화음을 맞춘다.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버스비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앉아있기 적적해서 정류장 주변을 맴돌았다. ‘영동 꿀사과’ 라는 문구와 함께 붉은색 글씨로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불품없는 전단지가 잿빛 전봇대에 붙어 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몇 년은 그 자리에 계속 있던 모양이다. 전화하면 누군가 받을지 궁금하다. 휴대전화가 없어 전화는 못해보지만 어렵פות한 짐작으로는 받을 것 같다. 편견일 수 있겠지만 시골 사람들은 연락처를 자주 바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촌스러운 갈색 정류장 시계는 시곗바늘이 멈춘 지 오래였고 뿌연 먼지가 윗부분을 덮었다. 아슬아슬하게 휘어진 못 위에 걸쳐 있다. 자세히 보니 건전지도 빠져있다. 문득 시계가 부러웠다.

처한 환경이 위태로워도 건전지만 넣으면 다시 새것처럼 움직이니 말이다.

정류장에서 열다섯 보 정도 떨어진 약간 기울어진 전봇대가 유일한 불빛이다. 주위로 크고 작은 나방들이 춤을 추고 있다. 불빛만 보면 달려드는 나방 떼들이 한심해 보인다. 저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 해도 달려들 모양이다. 타 죽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없지만 말이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다. 전봇대에서 떨어져 어둠 속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다. 그래서 일까, 조용히 다가오는 할머니 한 분을 눈치 채지 못했다. 평소 같았다면 안했을 인사를 꾸벅하고 말았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총각은 어대서 왔나?’ 하고 꽤나 뚜렷한 목소리로 물으신다. 내일 모레 사십인데 총각 소리를 들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내 첫 째 아도 서울 사는디.’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습니까.’ 하고 예의상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눠본지 오래되어 어색하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시켰다. ‘근디 요즘은 조까 힘든가버. 밤만 되면 전화를 해대. 계속 이곳에 살다 상경해서 적응하는데 똥줄이 타는 모양이야’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총각은 한창 바쁠 나인데 이 촌구석엔 무슨 일이고?’ 사실대로 말할까 순간 고민했다. 이내 마음을 접었다. ‘여행 차 잠깐 들렸습니다.’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여긴 외부인이 잘 안 오는데 총각이 숨은 명소를 아는구마잉’ 고개를 드니 할머니의 웃음은 주름이 깊었다. 서울

에 계신 할머니가 겹쳐 보였다. 하지만 묘하게 다른 느낌이다. 솔직해지고 싶어졌다. ‘사실 도망치는 중입니다.’ ‘총각 못된 짓 했나?’ 할머니가 놀란 듯 묻는다. ‘아뇨!’ 서둘러 오해를 푼다. ‘제가 도망친 건 경찰로부터가 아니라 도시로부터입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했죠. 보람과 성취만이 제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건 환멸감 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들 흔히 말하는 줄타기 밖에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든 상사의 눈에 들려고 발악하는 나방들 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 줄타기를 못한 바람에 승진은 고사하고 당장 하루하루 출근하는게 힘들 정도였죠. 집에 벌어들여주는 돈이 적으니 아내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시골 공기를 맡으면 괜챦아질까 싶어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길게 솔직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침묵이 잠시 맴돌았다. 이어진 할머니의 대답은 말이 이렇게나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총각. 버스 끊긴지 오래야.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2. 가을의 운문

안녕

이승연

안녕 한마디에 너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라면
아직 내 마음은 온전히 너의 것이기에
나의 안녕은 너의 안녕보다 조금 늦을 것 같구나

그림자

이승연

멀어지는 너
작아지는 뒷모습
뜨거워진 나의 두 눈을 감으니
자꾸만 커져가는 네 등 뒤 그림자
밝은 햇살 찾아 떠나간 너를 위해
세상 모든 그림자는 나의 것이 되었다

남가일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23기 오다은

새벽 2시 세상 모든 것이 잠들어 아무것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시간...

행복이라는 것을 낚은 사진첩에서 꺼내본다

낚은 사진첩에서는

영어를 자랑스럽게 지껄이는 나의 모습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팔짱끼는 나의 모습

군중 속에서 중심이 된 나의 모습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보인다

그러나 낚은 사진첩에서 거울로 시선을 옮기면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자아는

한없이 위축된 작은 어깨

삶의 무게에 짓눌려 휘어진 나의 척추

피곤한 인간관계에 질려 어그러진 표정

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또 다른 나의 자아는 나를 생각조차 없다

사람들은 여행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나에게 여행이란

남가일몽이다...

일장춘몽이다...

한단지몽이다...

그렇게 삶의 중간중간에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며

또 다른 나의 자아를 한없이 기다린다...

현실 자아와 또 다른 나의 자아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날까
지...

색채

23기 오다은

하얀 도화지를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해보려 하오.

빨간색은 어떻소.

또 파란색은 어떻소.

최대한 다양한 색깔로 칠해 풍부하게 채우려 하오.

그러나

그러다가 옆에서 색을 잃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소.

나는 그저 내 도화지를 화려하게 색칠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신의 색까지 뺏어가면서까지 칠하게 될 줄은 몰랐소...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외로워서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함부로 손을 뺐은 것뿐인데

그 접촉이 당신의 것을 뺏어버리게 될 줄은 몰랐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자신의 형체와 위치는 유지하셨건만

당신은 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오?

당신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저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엄마가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은 이제야 깨닫게 됐소.

공덕역 8번 출구

너는 마포에 산다고 했었다.
그게 다였다
내가 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네 이름 세 글자와 사는 곳 뿐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가방을 싸 마포로 향했다.
높은 빌딩 뒤에
우거진 숲,
그리고 그 너머
수많은 아파트들
그 중 하나에 네가 살아가고 있겠지.
저 수많은 방들엔 다 네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 어둡해진 기차역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걸음걸음마다 느껴지는 바람의 결도
하찮게만 보이던 모든 풍경이
사실 다 너였던 것이었다.

테헤란로의 저녁

저녁 여섯 시

불켜진 아파트를 비집고 나와

테헤란로로 향했다.

어둑해진 유리창 사이로

노을빛이 정신없이 튕겨져 나왔고

어깨를 맞댄 아파트 사이로

강렬한 빨간 빛이 쏟아졌다.

초저녁 노을 빛이 건물 위로 드리우자

저마다 광기서린 불빛을 내뿜기 시작하고,

도로는 새빨간 물결로 흐르기 시작한다.

초저녁, 그 찰나의 시간이 찾아오면

테헤란로는 가장 화려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도시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불빛만이 잔상으로 남아

가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제 4부 : 맺으며...

별과 같은 문집이기를, 우리이기를

23기 신보라

'우리'가 만든 첫 문집의 표지를 직접 장식할 기회를 얻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문집의 초장에서부터 가장 '우리'다운 울림을 내게 할까 고민을 하며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에게 별이 가지는 의미를 연결하기까지의 생각의 나열을 잠시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일 년 사계절 동안 많은 것은 변합니다. 다양한 식생이 피어나고 아름답기 나무 한 그루가 녹빛 갈빛 패션쇼를 선보이는 것처럼 자연물의 변화는 물론 수많은 갈등과 기쁨을 겪고 사람들 하나하나도 달라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시사철 내내 하늘을 수놓으며 지상을 보듬는 별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들은 그 미약한 점 하나하나가 모여 광대한 어둠의 천막을 수놓습니다. 작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색색의 빛이 모여 아름다운 감성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글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작은 글 뭉치를 나누는 우리들의 문예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사리 산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지리적 장점으로 저는 마음이 별과 가까워지기 쉽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작업이 저희에게는 '글'이기에 같은 별을 보고도 누군가는 빛을, 누군가는 어둠을, 누군가를 우주를 그럴 때 별은 말없이 우리의 자유로움을 지켜봐 주는 말없이 응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고 나눌 때 총총히 빛나는 눈동자 하나하나에 깃든 별빛이 글에도 깃들어, 소박하게나마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누군가의 여정에 온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지를 통해 담고 싶었습니다.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생각나는 문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별만큼의 꿈이 담긴 표지가 문예부 만년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집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23기 최서원

드디어 만년필 문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뿌듯함과 허전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는 것이 기분이 참 묘합니다. 돌이켜보면, 문집을 완성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모으고, 편집하고, 문집의 이름을 정하고, 또 표지를 만들고... 무엇을 해야할지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부원들 모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서인지, 완성된 문집을 넘기다 보면 곳곳에서 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학기 만년필 장으로서, 과분한 일을 맡게 되어 실수도 많았습니다. 사실, 완성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10월 초까지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일이 겹치다보니, 저의 미숙함도 한몫하여,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완성분을 내놓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놓는 문집이니, 다음 문집은 이번보다 훨씬 수월하게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만년필 문집도 이번처럼 부원 모두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그런 문집이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편집팀이었던 수아와 산이, 예쁜 문집 표지를 만들어준 보라와 표지에 쓸 사진들을 구해다 준 주환이, 그리고 못난 장을 믿고 따라준 모든 부원들과 문집 완성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 송원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문집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의미 있는 일 년의 마무리였길 바라겠습니다.

만년필 문집 1호 만든 사람들

지도교사 송원호 선생님

편집진 최서원 조수아A 최산

작품 제출자 최서원 신보라 조수아A 한지우 박성원

최서희 장승연 박서연 서주환 최 산 김태림 김민정

왕동현 아네모네 이현서 김수민 김중현 이승연 오다운

디자인 신보라 최서원 사진 김정웅

2019년 11월 12일 발행 (1호)
